淸末江浙鐵路紛糾(1905-1911)와 辛亥革命 前夜의 紳士層向方

1. 緖　　言

淸日戰爭以後 激化되는 帝國主義의 利權爭奪의 渦中에서 地方紳士들을 中心으로 利權回收運動이 전개되어 民族資本家層의 形成과 立憲運動의 推進의 바탕이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거니와 그 樣相은 대개 이미 淸廷이 내어준 鑛山, 鐵道의 開發建設權協約을 廢棄시켜 中國人의 資本으로 開發建設하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事例가운데 가장 成功的이었고 또 가장 두들어진 事例의 하나가 蘇杭甬鐵路建設을 둘러싸고 英國 및 淸廷과 對立한 1905年以來의 江蘇省 浙江省의 廢約拒款運動, 存款廢止運動이었다. 이 江浙鐵路紛糾를 領導한 것이 같은 무렵 활발해진 立憲運動의 兩大指導者인 張謇 및 湯壽潛 영도하의 紳士層이었다는 점에서 이 紛糾는 立憲運動의 向背와도 연결되겠고 더나아가 역시 그들 紳士層의 代表機關이었던 地方議會인 諮議局의 活動方向과도 연결된다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考察은 結局 淸末의 國民主義(내셔나리즘) 또는 地方中心主義의 성격의 이해에 귀착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立憲運動의 展開와 그 挫折, 諮議局의 對官鬪爭 뒤에 오는 辛亥革命이라는 「革命」에 對處해야 했던 江浙紳士層의 움직임을 理解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 江浙鐵路紛糾는 辛亥革命의 한 重要한 動因이었던 四川保路運動의 前轍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거니와 더우기 江浙地方이 革命後의 事態進展의 中心的 地域의 하나였음을 또한 감안하면 江浙鐵路紛糾의 眞相과 그 性格에 대한 硏究의 重要性은 足히 推量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本稿는 우선 蘇杭甬路에의 借款强要經緯를 旣往에 整理된 것보다는[1] 좀더 細密하게 살피면서, 더 나아가 旣往에는 言及이 덜되었던 存款廢止運動과 湯壽潛免職抗拒鬪爭의 경위를 아울러 살펴 辛亥革命直前까지 끌던 이 紛糾의 전모를 밝히고저 하였다. 그런 연후 그것들을 分析하되 주로 浙江省을 中心으로 하여 紳士層의 對中央政府鬪爭의 성격이 어떠하였으며 어떠한 屈折을 거쳐 淸廷에 絶望하여 辛亥革命에 對應하게 되는가 살피려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江浙鐵路紛糾自體를 領導한 紳士層의 反帝國主義的 또는 地方中心的 國民主義의 성격을 살폈고, 또 그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광범한 民衆運動이었기에 紳士層의 思想과 行動이 이들 民衆의 움직임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였는가도 당연히 살피고저 하였다. 紳士層과 大衆과의 關係의 性格이 考究되어야 비로소 紳士層의 움직임의 특성도 보다 鮮明하게 浮刻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企圖들이 성공을 해야만 江浙鐵路紛糾의 歷史的意義를 明白히 하는데 어느정도는 도움이될 수 있을 것이다.[2]

2. 蘇杭甬路紛糾의 發端에서 存款章程締結까지

江蘇省의 蘇州에서 杭州를 거쳐 寧波(甬郡)를 연결하는 鐵路가 建設되면 收益性이 매우 좋을 것이라는 着眼은 光緖 21(1895)年에 張謇에

(1) 藤井正夫, 江浙における鐵道問題とブルジョア勢力の一側面, 歷史學硏究(東京 1959) 183號.

趙金鈺, 蘇杭甬鐵路借款和江浙人民的拒款運動. 歷史硏究(北京)1959. 9. 山下米子, 辛亥革命の時期の民衆運動—江浙地區の農民運動を中心として—東洋文化硏究所紀要(東京 1965) 第37册.

E-tu zen Sun, Chinese Railways and British Interests 1895—1911, New York 1954. 이들 以外로 日文으로는 永井算己(信州大學紀要 7) 中文으로는 黃鐵琮(史學集刊, 1957. 1)등의 專論이 있다.

(2) 蘇杭甬路의 路線의 거의 大部分이 浙江省境內를 通過하게되기때문에 이 紛糾에 있어 浙江省側의 反應이 보다 敏感 激烈하였다. 따라서 本硏究는 당연히 浙江省側 움직임에 보다 重點을 두게될 것이다.

依해 이미 지적되고 있다. 그는 「代鄂督條陳立國自强疏」에서 蘇州를 中心으로 南京·杭州로 뻗는 路線의 通過地域이 物貨 旅行者가 많고 敷設距離는 짧고 地形은 工事를 容易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3] 張에 依하면 이미 많은 洋商들이 이 路線에 착안하여 代造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張이 말한 그 路線은 後日 光緖 24年에 英國이 滬寧(上海·南京間)路와 蘇杭甬路로 나누어 敷設權을 획득한 바로 그 路線과 거의 一致하고 있다. 英國外에 日本[4] 獨逸도[5] 蘇杭甬線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이었음으로 中國人側에서 이 路線을 建設하자는 움직임이 나올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니 張謇의 指摘이 있던 바로 다음해에 分省道 林維臻을 總辦으로 하는 杭州紳商의 組織體에서 50萬兩의 資本을 준비하여 놓고 蘇杭線의 一部가 될수있는 拱辰橋에서 江干閘口(40里)線을 商辦하겠으니 政府의 鐵路總公司는 간섭하지말라는 진정이 浙江巡撫에게 들어간 일이 있었다.[6] 이 제의는 實現을 보지못하였지만 收益性이 좋아보이는 蘇杭甬路線에 대해 일찍부터 中外의 關心이 날카롭게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의 事態進展에 하나의 伏線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갈래의 關心도 光緖 24年(1898) 9月 1日(1015)에 督辦鐵路總公司大臣 盛宣懷와 英國의 中英(銀)公司間에[7] 蘇杭甬路의 敷設權을 英國이 갖는다는 4條로된 草約(假條約)이 맺어짐으로서 一段落된듯 보였다.

이 草約의 第3條에는 草約締結後 怡和洋行이 銀公司를 대신하여 「速

(3) 張謇, 張季子九錄(臺北文海出版社, 1965年 景印) 政聞錄 卷 1 p. 45.
(4) 盛宣懷, 上李傅相書(光緖 24年 5月 7日), 盛宣懷未刊信稿(北京. 1960) p. 78.
(5) E-tu Zen Sun, p. 69. ff.
(6) 清季外交史料(臺北文海出版社景印本)卷 126. p. 404.
浙撫廖壽豊致總署浙人集股築杭州鐵路請作爲商辦電(光緖 23年 6月 27日)
(7) 英國政府가 匯豊銀行으로하여금 獨逸系資本을 排除하여 怡和洋行과 더불어 鐵道經營을 專擔하기위해 1898年 5月에 設立한 The British and Chinese Cooperation의 中國名. 謝彬, 中國鐵道史(上海 1934再版) p. 41 參照

히」路線工事를 위한 測量을 하도록 하였고 第4條에서는 만약 該當地方에 곤난한 形便이 있으면(窒礙之處) 바로 「更正」할 것이 規定되어 있었다.[3]

英國으로서는 당장 起工하기 위해 이 協約을 맺은 것이 아니라 他國에 앞선 路權確保에 一次的意義를 두었기 때문에 路線建設工事는 오래도록 시작하지아니하였지만[9] 收益性이 좋을 이 路線을 英國側에 뺏기지 않으려는 中國側의 움직임은 草約締結 후 얼마 안되어 일어났었으니 光緒25年 洗馬 徐琪의 이름으로 抗州에서 北上하는 杭寧線의 停辦을 요청한 일이 있었으나 英國側과 이미 約定하였다하여 拒絶되었다.[10]

보다 本格的으로 蘇杭甬路의 中國側建設이 문제된 것은 光緒29年이었으니 浙江의 紳士 錢錦孫이 獨逸資本과 손잡고 上海에서 乍浦를 거쳐 杭州·湖墅에 이르는, 英國側의 上海杭州路와 사실상 並行되는 노선을 건설하여 英國側確保路線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鐵路督辦盛宣懷에 依해 英國側確保路線과 競爭함으로서 資本이 허실되고 英國의 抗議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拒否되었는데[11] 여기서 英國側利害와 中國人側 그리고 獨逸側의 利害와의 衝突이 현저해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中國人側의 利權回收努力은 시들지 않아 上海의 有力한 紳商인

(8) 墨悲編 江浙鐵路風潮 第1册 (上海, 光緒 33年 11月 15日) 第2册(上海, 光緒 33年 12月 3日) 合本影印本(中國國民黨黨史史料編纂委員會印, 臺北, 1968) p. 7에 草約全文이 보인다. 이 「江浙鐵路風潮」(以下 風潮로 略)는 蘇杭甬路拒款廢約運動에 관한 官方記錄 新聞記事 其他 關係記錄을 集成해 놓은 것이다. 史料에 時日이 賦與 되어있지않음이 最大의 缺點이나 關係史料가 網羅되었다는 점에서 지극히 便利하다.

(9) 東亞同文會編, 支那經濟全書 第5輯 (上海, 1908) p. 297 參照. 英國은 이미 確保해둔 많은 鑛山開發權도 開發을 서둘르지않음으로서, 中國側 利權回收運動者에게 「逾限不開」라는 廢約鬪爭의 구실을 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李恩涵, 晚淸的收回鑛權運動, 臺北, 1963 pp. 162—63參照.

(10) 淸季外交史料 光緒 卷 207. p. 392—95. 光緒 33年 10月의 外部上奏에 言及됨.

(11) 淸季外交史料 光緒 卷 171 p. 454 鐵路督辦盛宣懷致外部錢錦孫請辦滬杭鐵路已咨駁電(光緒 29年 4月29日)

李厚祐를 中心으로한[12] 浙江紳士들이 錢과 거의 같은 路線을 다시 申請해왔던[13] 것이다. 이에 盛宣懷는 前記한 錢錦孫申請의 却下를 外部에 通告하기 하루 전날 즉 4月 28日, 英國의 銀公司代表「브래난」에게 中國人(他商)이 蘇杭甬路를 建設코저 하는 狀況下에서 英國側起工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으니 앞으로 6個月以內에 測量과 工費算出을 하여 正約을 체결하지 않으면 光緖24年의 草約을 廢棄하겠다고 通告하였다.[14] 錢·李등의 집요한 對英攻勢가 일단 奏效한 것이었다. 銀公司는 5月 5日에 盛의 通告書翰에 대한 答書는 보냈으나 그안에서 문제의 6個月內測量에 대해서는 言及을 廻避한채 正約의 早速한 締結만을 거론하여 正約締結을 빨리하고 늦게하는 것은 全的으로 中國側에게 달렸다고 발뺌하였다.[15] 盛에 依하면 그뒤 閏5月 15日 滬寧路協約締結 때에도 기한 안으로 作業을 시작하지 않으면 草約을 廢棄하겠다고 거듭(口頭) 통고하였다한다.[16] 蘇杭甬路自體에 대해서는 그뒤 특별한 進展이 없이 이것으로 일단 가라앉은듯 보였다. 그러나 翌年(光緖30年) 張之洞에 依한 粵漢路回收運動이 일어나 成功을 거두었고[17] 光緖31年 2月부터 浙江省에서도 衢州 嚴州 溫州 處州등 4府의 礦權收回運動이 벌어지는등[18] 利權收回運動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31年 4月에는 美國의 合興公司가 浙贛線

(12) 風潮에 依하면 (p. 76 p. 85) 李는 分部郎中으로서 上海商務總會總董이었다.

(13) 東方雜誌 2年 11期(光緖 31年11月) 各省鐵路彙誌.

(14) 盛恩頤等編, 愚齋存稿 卷 14, 奏疏 14, 2a—2b 密陳蘇杭甬草約原案詳確情形摺 (光緖 33年11月)

(15) 上揭奏摺 2b.

(16) 上揭愚齋存稿 卷 12. 奏疏 12. 3b. 覆陳議廢蘇杭甬鐵路合同摺(光緖 32年 2月), 같은해 10月 14日에 發布된 「重訂鐵路簡明章程」(前揭 支那經濟全書 第5輯 pp. 98—104)의 第13條에서는 鐵路建設條約이 批准되어 6個月內에 測量을 完了해야하고 그뒤 6月個內에 工事시작을 해야한다고 一律的으로 明文化하였다. 列强이 占有한 利權을 着工期限이 지났다는것을 근거삼아 回收하는 方法은 利權回收運動의 아주 效果的인 方法이었다. 安徽省, 山東省의 礦權回收가 그 例이다(李恩涵前揭書 p. 162 p. 178 參照)

(17) 李恩涵, 中美收回粵漢路權交涉 —晚淸收回鐵路利權運動硏究之一—,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集刊 第1期, 臺北, 1968.

(18) 李恩涵, 前揭書 p. 131—138 이는 翌年 8月에 完全히 成功하였다.

에 介入하여 浙江巡撫에게 借款供與를 申請하여 杭州 嚴州 衢州의 紳士들의 反對로 좌절되는 사태가 일어났다.[19] 이같은 粵漢路와 浙贛路에 관련된 利權回收運動의 成功的推進이 李厚祐 等의 自辦鐵路企圖失敗와 연결될 것은 當然히 생각될 수 있는데 이에 浙江省의 路權을 收回하여 自辦하라는 本格的이고 規模 큰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浙路公司의 副總理로서 이 蘇杭甬路의 廢約拒款運動의 主役의 한사람이었던 劉錦藻가 「自己의 見聞이 比較的確實」함을 전제로 하여 述懷한 바에도 보이는 바이다.[20]

그리하여 浙江紳士들의 浙江省鐵路自辦組織인 浙路公司가 結成됐는데 이는 光緒31年 6月 22日, 汪康年 張元濟 湯壽潛 등 저명한 立憲改革論者를 비롯하여 嚴信厚 沈敦和등 上海의 大資本家등 160餘名에 依해 조직되어 總理에 湯, 副理에 劉錦藻가 선출되었다. 아울러 浙路自辦의 장애가 되는 英國과의 蘇杭甬路草約의 廢棄主張을 議決하여 그뜻을 盛宣懷에게 打電하였다.[21] 浙省 同鄕京官인 翰林院侍讀學生 黃紹箕는 商部에 公司設立과 任員選定을 報告하고 總理湯壽潛에게 卿銜을 賞給할 것을 要請하여 四品卿銜을 賞給받았거니와.[22] 아울러 商律에 依據한 公司章程의 制定도 報告하였다.[23] 이 章程은 大學士·尙書侍郎을 지낸 王文韶, 尙書 葛寶華, 侍郎 陳邦瑞, 沈家本 胡燏棻등 浙省出身鉅紳의 同意支援

(19) 藤井正夫, p. 23

(20) 劉錦藻, 皇朝續文獻通考(臺北新興書局再印 以下 通考로 略)(臺北, 新興書局本)卷364 郵傳 5 按語 p. 364. 11109

(21) 浙路公司設立經立經緯에 대해서는 東方雜誌 2年 8期, 光緖 31年 中國大事記, 同2年 11期 各省鐵路彙誌등에 보인다.

(22) 前述한 重訂鐵路簡明章程 第9條에는 華人의 鐵路開辦을 奬勵하기위해 獨力으로 株式投資가 50萬兩以上이면 優奬하고 株式募集이 50萬兩以上이면 工事完了後 優奬한다하였다(前揭 支那經濟全書 第五輯 p. 100). 湯壽潛의 경우는 이 條文대로는 아니나 그뜻은 鐵路簡明章程 第9條에 의거한 것이리라

(23) 淸德宗實錄 卷 547 光緖 31年 7月丁酉條, 및 沈桐生, 光緖政要 卷 31(光緖 31年 7月條) 54b~55b.

을 얻어 商部에 報告하고 있는데[24] 發起人이나 章程審議에 參與하였다는 이름들로 보아 浙江省의 紳士를 總結集했다고 볼 수 있겠다. 浙路公司는 成立旬日에 벌서 2百餘萬兩의 株式을 모집하였다.[25] 浙路公司가 浙路建設을 위해 취한 다음 조치는 英國과의 草約을 廢棄할 것을 正式으로 要請하는 일이었다. 31年 8月에는 浙省同鄕京官인 御史 朱錫恩을 시켜 草約締結이후 7年을 경과했음을 지적하면서 廢約해야 한다고 上奏케 하였다. 廢約交涉은 當時의 責任者 盛宣懷에게 맡기되 「핑계를 대어 늦장부리지 말도록」 해야한다고까지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이 上奏는 8月 25日에 裁可되어 盛宣懷 및 浙江巡撫에게 廢約交涉의 任務가 주어졌다.[26]

盛은 9月 5日 中英公司에 대하여 廢(草)約토록 努力하라는 上諭가 내린것을 알리면서 廢約을 議論하자고 通告하였으나 銀公司는 草約이 中國政府의 認許아래 簽押된 것을 强調하면서 英國公使(Satow)에게 請示할 시간적여유를 요청하였고 盛은 12月 3日에 다시 廢約을 論議할 것을 재촉하였다.[27] 盛의 論據는 現事態가 草約에 있는「窒礙之處가 있으면 곧 更正한다」는데에 해당할 뿐아니라 光緖29年 4月의「6個月以內着工通告」가 無視됐음으로 廢約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盛宣懷로부터 廢約을 論議하자는 9月 5日의 正式通告를 받은 뒤, 銀公司는 盛에의 答復에서 草約에서 말한「窒礙」는 浙紳들의 廢約主張같은 것을 가리킬 수 없고 鐵路敷設工事時의 어려움을 指稱한다고 反駁했고 測量을 안했다는 데에 대해서도 1898年 10月 間에 시작하여 다음해 3日까지에 完結지었다고하여 盛의 論據를 反駁하였었다.[28] 그러다가 12月 3日 盛이 보낸 再次 通告에 대한 答覆(12月 18日)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英國公使의 見解에 좇아)

(24) 通考 卷 365 p. 11098

(25) 同上註

(26) 淸德宗實錄 卷 548 光緖 31年 8月 乙丑.

(27) 風潮. p. 14~15 盛大臣致銀公司函. 이에앞서 盛은 9月 9日 外部와 商部에게 英國公使와 交涉할 것을 요청하였었다(風潮 p. 31~35).

(28) 風潮, p. 16 銀公司覆盛大臣第1函.

現在 滬寧鐵路의 督辦大臣인 盛宣懷로서는 浙路問題를 다룰 자격이 없고 따라서 盛의 通告는 中國政府의 公式見解가 아니라고 본다고 盛과의 論議自體를 正面으로 拒否하였다.[29] 이에 對하여 盛은 廢約件에 관하여 皇帝의 命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아울러 測量을 이미 했다지만 그 測圖를 본 일도 없고 議論받은 바도 없으니 草約3條에 依據한 測量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30] 그뒤도 英國側은 꾸준히 盛의 交涉資格을 認定하지 않고 現地의 浙江巡撫를 상대로 交涉하려하고 있다.[31] 英國側이 浙撫와 논의하려는 것은 浙江巡撫도 盛과 同時에 廢約에 노력하라는 上諭를 받았기 때문일 것인데, 무엇보다 盛이 앞서 요구한 6個月內 起工通告에 대응하는데 있어 盛과 交涉하는 것이 英國側으로서는 不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英國이 (盛에게 測量을 完了하였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草約에 있는대로 測量할 수 있도록 接觸에 應해달라」고 浙江巡撫에게 要求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浙江巡撫는 애초 草約은 盛宣懷와 맺은 것일뿐 아니라, 盛이 이미 廢約을 主張하였은 즉 測量은 必要없다고 강경히 英國側要求를 拒否하였다.[32] 浙江紳士들의 움직임을 등에 입은 浙撫의 强硬한 態度에 부딪친 英國側은 이젠 北京의 外部와 交涉을 벌렸다. 이에「中國政府가 계속 袖手坐視하게되면 兩國關係가 惡化하여 兩國이 모두 損傷될 것이라」는 脅迫에 가까운 通告가 外部에 보내졌다.[33] 8月,「새토우」에 이어 새로 부임한「조단」公使가 外交上의 信義를 들고나와 正約締結과 測量着手를 거듭 要求하자, 外部는 廣州九龍線正約체결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고 하여 浙撫의 완강한 태도와는 달리 妥協的인 태도를 보여, 앞으로의 交涉의 餘地를 남겨놓았다.[34] 이에 비로소

(29) 風潮. p. 17 銀公司覆盛大臣第2函 및 前揭愚齋存稿 卷 14 4b.
(30) 風潮. p. 18 盛大臣覆銀公司函 및 前揭愚齋存稿 卷 12 30a
(31) 前揭愚齋存稿 卷 14 5a
(32) 風潮. pp.19—26 所收 浙撫와 領事와의 往復文件.
(33) 通考 卷 366 郵傳 7 路政 7 p. 11108 所引 光緖 33年 9月14日上奏 및 風潮, pp. 35—38 外務部奏蘇杭甬鐵路借款辦法摺.

浙江路問題에 있어 中央政府와 地方의 利害가 對立되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素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浙紳들은 31年 末頃부터 第1區線인 江干—湖墅間의 測量을 시작하여 32年 9月에는 起工式을 갖기에 이르렀다.[35] 光緖33年 1月 23日 廣九線正約이 締結되자 英國側은 浙路問題解決을 다시 재촉하여, 그 結果 外部左侍郎 汪大燮과 銀公司 間에 協議가 進行되어 鐵道敷設은 中國側에 맡기되, 英國은 建設借款을 供與한다는데에 大略 合議하였고 汪이 駐英公使로 赴任한 뒤는 外部右丞梁敦彥이 交涉을 마무리하였는데 鐵路敷設과 借款의 供與의 두 原則을 補完하여 이미 募金한 資金은 그대로 使用하여 中國側에 손해가 없게하고 그外 더 必要한 資金으로 150萬 파운드를 借款으로 充當하고(鐵道를 담보로 하지않고) 現有募金을 담보로 삼음으로서 銀公司가 鐵路建設에 간섭하지 못하게한다는 것으로 하였다.[36] 結局 鐵道建設自體는 浙紳이 담당한다 하드라도 浙紳이 스스로 資本을 조달하는 완전한 自辦은 不可能하게 되고 借款이 强要됨으로서 自辦이 不可能하게되어 利權回收의 原則에도 어긋나게 된 것이다. 이 合議는 皇帝의 裁可를 얻어 33年 9月 14日 公布되었는데 公布上諭에서는 外交上의 信義를 강조하면서 訂約權이 朝廷에 있음과, 草約廢棄가 成功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江浙의 株式募集도 所要額에 크게 못미처 期日內竣工이 어려울 것이니 借款을 받어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英公司의 借款用株式募集에 있어서는 江浙紳商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이미 일을 보고 있는 鐵路公司人員을 留用할 것 등 약간의 慰勞策을 말하였다.[37]

그동안 浙紳들은 꾸준히 廢約運動을 展開해 왔었으니 31年 10月에는 浙

(34) 同上註.
(35) 前揭 支那經濟全書 pp. 313—314
(36) 同註 (33)
(37) 淸德宗實錄 卷 579 光緖 33年 9月 壬寅. 및 通考 卷 356 p. 11108의 外部上奏

紳 樊恭煦 등이 浙撫에게 外部로하여금 盛宣懷에게 廢約을 貫徹하도록 要求하라는 진정을 하였고 32年 1月에는 浙路公司 總副理의 이름으로 政府에 廢約을 강력히 요구하는 電報를 보내었고, 浙江士民의 이름으로된 廢約陳情電이 商部에 보내어지고 있다. 4月에는 浙省 京官 孫寶琦가 英國側要求를 死拒할 것을 商部에 呈請하였다.[38]

이렇듯 廢約을 强力히 主張하였는데도 結果가 上記한 借款强要로 落着되자 廢約主張은 借款反對(拒款)運動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光緖 32年 4月에 江蘇省側에도 蘇路公司가 發足됨으로서 浙路公司는 蘇路公司와 함께 운동을 전개 하게되는데 蘇路公司는 浙江紳士의 움직임에 자극받어 陸潤庠, 惲毓鼎등 256名의 紳士가 主動이 되어 蘇杭甬路의 江蘇省部分(蘇路)을 自辦하기 위해 설립했던 것이다. 總理에는 王淸穆 協理엔 張謇 王同愈 許鼎霖등 鉅紳을 선출하였었다.[39]

借款强要의 소식이 전해지자 江浙地方에서는 後述할 바와같이 9月 16日 杭州에서 浙江國民拒款會가 열린 것을 筆頭로 大大的인 拒款運動이 일어났고 江浙路兩公司에서도 9月 18日에 共同名義로 借款反對의 뜻을 强力히 表明하였다.[40]

大大的인 拒款運動을 맞은 外部에서는 해결의 方法으로 拒款運動의 領導級人士를 北京에 招致하여 關係文書를 보이며 논의하기로 하여 32年 10月 24日에 兩省에 代表派遣을 促求하였다.[41]

이의 대한 兩路公司의 反應은 多分히 批判的이었으나 다음달 8日, 10日에 各 股東(株主)會에서 北上代表를 選出하되 外部가 希望하는대로 借款問題를 논의하는 것이 아닌 鐵路自辦貫徹代表로 삼으려 하였다.[42] 股東會議는 代表派遣拒否論議 끝에 前武英殿大學士요 前軍機大臣인 浙江杭州

(38) 謝彬, pp. 357—359
(39) 東方雜誌 光緖 33年 9期及 11期 各省鐵路彙志
(40) 淸季外交史料 卷 206 pp. 381—382, 風潮, p. 269—71
(41) 淸德宗實錄 卷 581 光緖 33年 10月壬午 및 風潮, p. 49 外務部致江浙督撫電 (n.d)
(42) 風潮, p. 272 蘇浙路公司致郵部電 및 同 p. 261 馮撫代奏拒款,

府人 王文韶가 兩省에서 다같이 共同代表로 選出되었으며 江蘇省代表로는 許鼎霖 楊廷棟 雷奮 王同愈, 浙省代表로는 張元濟 孫廷翰 孫詒讓 등이 選出되었다.[43] 이들 入京代表가 外務部尙書 袁世凱에게서 提示받은 것은 部借部還論이었다. 즉 兩路公司아닌 郵部가 中英公司의 借款을 받아드리되 郵部는「別途」로 千萬兩을 兩路公司에「轉借」하고 抵當으로서는 다른 곳의 官營鐵路收益으로 充當하여 蘇浙兩路와는 相關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兩路代表側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英國側과의 妥協을 거쳐 借款合同24條가[44] 郵部와 英國側間에 체결된 것은 翌年 2月 4日이었고 郵部가 따로이 兩省鐵路公司와의 사이에「轉借」한 資金援受關係를 規定하고 아울러 江浙路가 官辦도 아니고 洋辦도 아닌「商辦」임을 明記한 江浙鐵路公司存款章程의 上奏·允許를 얻은 것은[45] 3月 15日이었다. 借款合同에서는 借款은「中國國家」에게 供與하고 建造管理도「中國國家」가 辦理할 것, 借款은 10年後에는 언제든지 償還할 수 있다는 것, 築路管理를 위한 技師長을 任命할 경우 借款期間內엔 반드시 英國人으로 할 것 등이 規定되어 있었다.[46] 存款章程의 內容은「滬杭甬路」가「完全商辦」임을 明白히 하되 그러나「郵傳部로부터」千萬兩을 빌려쓴다는 것과 그 돈으로 인한 英國側의 干涉을 안받는다는 것, 그리고 支拂期日과 그 額數를 規定하여 存款額을 最高 千萬兩 最下 750萬兩으로 하고 第1回 支拂은 存款章程締結後 7個月 內에 80萬兩을, 第2回는 그뒤 12個月 內에 殘額 全部를 支拂하되 만약의 경우 18個月~24個月까지 期日을 延長할 것이나

(43) 續通考 卷 368 所收 劉錦藻 浙路概略 pp. 11130—31. 및 藤井. p. 24

(44)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編, 海防檔(臺北 1957), 戊, 鐵路. No. 365 (pp. 583—592)및 淸季外交史料 光緖 卷211, pp.441—47.에 滬杭甬鐵路借款合同이 收錄됨.

(45) 上揭書 pp. 621—625 및 通考 卷 367, p. 11116에 存款章程全文이 보임.

(46) 袁世凱는 이 合同이 매우 有利한 것임을 强調하여, 正約은 滬寧線의 正約과 같은 條件으로 한다고 草約에는 되어있지만, 滬寧路의 正約에 規定된 不利點 即, 當該鐵路로 作抵한다는 것과, 西洋人(英國人)의 會計監査權 등이 빠져있다고 하였다. 淸德宗實錄 卷 587 光緖 34年 2月 庚申 및 沈祖憲等, 容庵弟子記(臺北 1962景印)卷 4 p. 203—204 參照.

그 기간이 지나도 支拂이 되지 않으면 存款章程 自體를 廢棄한다는 但書가 붙었다. 이 두 協約의 結果 이제는 蘇杭甬路의 이름도 滬杭甬路로 바뀌었고(起點이 蘇州대신 上海로 바뀌었다)[47] 郵傳部는 滬杭甬路局을 上海에 設置하여 總辦에 施肇曾 坐辦에 周金箴을 任命하였다.[48]

激烈하였던 拒款運動이 「部借部還」하여 轉借한다는 形式으로 妥結되어 一見 英國側의 干涉을 상당히 배제한것 같으나 借款自體는 결국받아 들여야 했던데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으나 가장 重要한 것은 拒款運動의 理論的支柱인 默許論 即 英國側이 이미 廢約을 默許했었다는 論據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 默許問題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던가? 以下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御史 朱錫恩같은 사람의 廢約主張의 논거가 草約締結 7年이 지나도 正約이 맺어지지 않았으니 西洋法律의 契約無效要件이 된다는 것이었는데[49] 廢約推進命令을 받았던 盛宣懷는 光緒 31年 8月 浙省同鄕京官에의 答復에서[50] 처음으로 「默許」를 말하였었다. 盛은 이렇게 말하였다. 銀公司正約締結促求函을 또 보내왔기에 그에 대한 答書에서 자기가 말하기를 이미 자기가 6月 1日에 草約廢止를 거듭 통고하였는데 그로부터 2個月이 지난 지금(8月)까지 英國側에서 回答이 없으니 (無續音) 그들의 無反應狀態를 利用하여 한편으로 迅速하게 自辦을 推進하여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여 數個月이 지나면 「默許」로 간주되어 草約은 자연 廢止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51] 그뒤, 12月에 銀公司에 보내는

(47) 이 當時 上海(滬) 嘉興間路線은 거의 完成段階에 있었음으로 草約대로 蘇州 嘉興線을 그대로 건설한다면 上海 嘉興間線이 虛設된다 하여 起點을 바꾼과 아울러 改名하였다.

(48) 藤井 p. 24에 施肇基라 함은 잘못, 海防檔 No. 457 (光緒 34年 11月 10日) 外部收英使照會. p. 717—18에 施肇曾이라보임.

(49) 風潮, pp. 9—10. 清德宗實錄 卷 548 光緒 31年 8月 25日(乙丑).

(50) 여기에는 致函期日이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나 風潮 p. 10—11의 浙省同鄕京官致盛函內에 公司成立의 商部代奏(註23參照) 「上月」의 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致函期日이 八月임을 알겠다.

(51) 同上 p. 11, ~12.

書翰에서, 앞서 光緒 29年 4月 28日에, 앞으로 6個月이 지나도 勘路(測量設計)估價(經費算出) 않으면 廢約하겠다고 통고하였는데 지금 그로부터 2年半이 지났으니 草約은 마땅히 廢止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는데[52] 이4月 28日의 통고에 대한 銀公司側의 答信(5月 5日)이 있었음을 밝히지 않으채, 盛의 致函만이 流布되어(아마 盛스스로 말도하여) 사람들은 이것이 곧「默許」나 같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嚴格히 말하면 盛이 銀公司의 無反應을「默許」로 斷定하여 明言한바는 없었다. 前後로 보아, 前者에서는 反應이 없었으니 默許한 것이나 같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後者에서는 二年半이나 要求에 대한 應答이 없었으니 廢約이 可能한데 그 근거가「默許」일 수 있다고 어렴풋이 示唆한데 不過하다. 그런데도 廢約論者들에게 盛이「默許論」의 發說者로 받아드려 졌던 것은[53] 무엇때문인가? 이에 대해 劉錦藻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英商側이 答書를 보내왔는데도(5月 5日의 答書를 말함) 宣懷는 이를 널리 알리지 아니하였고 外部, 商部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으니 (이에) 蘇浙人은 英國이 約定을 廢棄할 수 있다고 이미 默認한 것으로 생각하였다[54]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살필 浙路公司總理 湯壽潛의 盛宣懷糾彈文에 보면 英國側의 默許與否가 말성이 되어 그 眞相을 밝히라는 上諭를 받고 32年 11月에 上京하기위해 上海를 떠나면서도(그곳 廢約拒款運動者에게) 英國側의 回答이 없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55] 이것이 사실이라면 盛은

(52) 風潮, pp. 14—15.

(53)「風潮」의 編者는 盛宣懷의 浙省同鄕京官에의 答書에 대한 按語에서「無答復」은 默行認許의 뜻이라하고 (p. 12) 12月 3日字의 盛의 致銀公司函의 按語에서는 이 편지가「草約可廢之根據」라 하였다(p. 15), 浙路公司가 新任巡撫 (光緒 33. 7. 28) 馮汝騤에게 제출한 呈文에서「近十年에 이르는 默許로 廢棄된 草約」이란 말을 하고 있고(風潮 p.64) 浙江府紳士 115人의 呈請代奏文에도「默許」云云이 보인다(風潮 p. 39—42), 그 外 蘇路浙路總協理上外部郵部文(風潮 p. 65), 朱福詵이 代表가 된 浙江同鄕京官呈請代奏(風潮 pp. 249—52), 蘇路浙路咨呈江督文(風潮, p.269). 浙路致北京浙路辦事處電(風潮. p. 60), 御史 徐定超의 上奏(風潮 pp .240—241), 御史孫培元의 上奏(風潮 p. 244). 京鄕各學校呈請都察院代奏摺(風潮 pp. 256—59) 등이 모두 그러하다.

(54) 通考 卷 366 郵傳 7, p. 11109, 編者按語.

江浙民心에 一時的으로 迎合하기 위해 眞相을 糊塗하려한 것이라 보겠다. 默許論이 廢約論의 강력한 論據가 되어가자 「外交信義」를 위해 英國側立場을 옹호할 처지에 있던 外部에서는 33年10月 24日의 上奏에서 마침내 이 문제를 들고 나섰던 것이다.[56] 英國側公司가 확실히 默認한 證據가 없는데도 默認이라고 본다면 이는 自欺일뿐, 남에게 그것을 强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默認論의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江浙서 代表를 불러온다는 것이었다. 前記한 江浙代表를 불러 關係文書를 보이며 논의한다는 것이 곧 이를 이름인 것이다.

來京한 兩路代表에 대하여 外部右丞(署右侍郎) 梁敦彥은 銀公司의 代表「블랜드」의 말을 傳해 주었다(關係文書의 公開가 이것이다). 「블랜드」는 (문제의 盛의 書翰에 대하여) 「일찌기 答復하였으며(·따라서)默許한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57] 이제 문제는 정말 盛이 銀公司側의 答書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되었다. 後日 湯壽潛이 盛宣懷를 공격하는 糾彈文에서 「借款을 받아드리고 안받아드리고는 (그때) 答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달리게 되었다」라고 表現하였던 狀況이 그것이다.

10月 24일 江浙代表를 부른 바로 그 다음날 (아마도 外部의 要請으로)[58] 盛宣懷를 北京으로 부른 淸廷은 11月 7日, 盛에게 默許의 事實與否를 明白回奏하라는 上諭를 내렸다.[59]

盛宣懷가 이 上諭에 應해 올린 上奏(密陳蘇杭甬草約原案詳確情形摺註 14)에서는 光緖29年 5月 5日에 銀公司의 回信(4月 28日의 通告에 대한)이「있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것이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默許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60] 英國側의 그 答書에서 6個月內에 勘路估價않으면 廢約한다는 말에 대한 回答은 안했지

(55) 東方雜誌 7年 8期. 中國大事記, 湯壽潛致軍機處電.
(56) 光緖政要 卷 33. 德宗實錄 卷 581. 光緖33年 10月 壬午(24)
(57) 同註 54.
(58) 盛恩頤等編, 愚齋存稿 卷 23. 25b. 遵旨由漢赴京電奏.
(59) 淸德宗實錄 卷 582 光緖 33年 11月甲午.

만 빨리 正約을 締結하자고 독촉하고 있음으로 草約의 廢止를 默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盛宣懷가 英國側의 答書가 있었음과 默許가 없었음을 認定하게 되매 江浙紳士側의 反對論據가 霧散해버렸기 때문에 江浙紳士들은 部借部款의 形式이나마 借款導入에 同意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공격의 화살은 外部로부터 盛에게로 옮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실 外部가 江浙代表를 불러 盛宣懷로 하여금 사실을 證言케 한 것은 外部尙書(33年 7月 27日任命) 袁世凱가 外部로부터 공격의 화살을「紛糾를 釀成한 者」인 盛에게 돌리고 同時에 江浙人士의 反對論의 기를 꺾기 위해 細心히 計劃된 것이었다.[61] 光緖 34年 2月 4日에 借款合同이 調印되어 紛糾가 一段落된뒤인 2月 7日, 盛은 郵傳部右侍郞에 任命됐으나 바로 2日後에 右侍郞資格으로 會辦商約大臣에 兼差됨으로서 北京아닌 上海에서 (郵傳部侍郞으로서의 實務를 보지 못한채) 계속 머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盛에 대한 이 갑작스런 결정은 (淸德宗實錄 卷 587 光緖 34年 2月癸亥 및 乙丑) 아마도 袁世凱에 依한 責任追窮 또는, 江浙紳士에 대한 慰示를 위한 것으로 짐작되는 바, 만약 盛의 과실이 들어났으면서도 그에 대한 조처가 없었다면 借款拒否를 완전히 관철하지 못해 억울해하는 江浙紳士들을 납득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盛의 官職을 높여준 것은 英國側에 대한 고려일 것이다.) 盛에의 이 조치에 대하여, 盛宣懷의「行述」에는 上海로 가려고 辭陛하였을때 西太后로부터 왜 갑자기 北京을 떠나려는 가라는 質問을 받고서 비로소 이번 조치가 太后

(60) 同註 14 所揭摺 7a

(61) 張一麐, 古紅梅閣筆記(心太平室集, 文海出版社版, 中國近代史料叢刊本) p. 476에 袁의 親信幕友였던 張一麐의 말로 這間의 經緯가 설명되어 있다. 袁이「이번 鐵路紛糾는 盛宣懷등이 벌인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外部를 맡았는데 왜 나를 공격하는가」라고 하기에 張이 江浙代表를 불러, 文書를 公開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는 것이다. 前記 光緖 33年 10月 21日의 外部上奏는 默許事實이 없다는 確信을 갖고 文書公開를 말하고 있다. 張一麐에 依하면 文書를 본 江浙代表들은「嗒然無詞 歸報公司 自辨之說乃寢」이라 하였다한다. 當時의 中外日報의 보도에 依하면 (風潮 p. 495) 袁은 盛을 공격하기를「事實을 舍糊하여 紛爭을 惹起하였다」고 공격하였다 한다.

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님(즉 다른사람, 아마도 袁世凱의 주장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고 하고 있다.[62] 實質的인 解任이나 다름없는 이번 조치가[63] 袁의 作用일 것이라는 추측은 袁이 盛을 심히 공격하였었다는 張一麐의 기술로도 가능하거니와 英國側과 借款導入交涉을 하였던 外部右侍郎 汪大燮을 袁이 두둔했는데 袁과 對立됐던 張之洞은 反對로 盛을 두둔했었다는 當時의 報道에서도 傍證을 구할 수 있다.[64]

3. 拒款運動의 展開

光緒 33年 9月 14日의 借款導入決定上諭가 알려지자 鐵路公司側과 浙省紳士를 中心으로 한 大衆的借款反對運動이 거의 同時에 일어났다. 前者는 9月 18日의 兩江總督에의 咨呈에서 밝힌 강력한 反對宣言에 나타났고[65] 後者는 9月 16日의 杭州에서의 浙江國民拒款會의 開催로 나타났다.[66] 借款導入에 분격하여 絶食自殺한 浙路鐵路學校學生 鄔鋼의 주검(9月 17日)과[67] 浙路副工程師湯緖의 주검(9月 20日)은[68] 拒款運動을 激化시키는데 크게 作用하였다.

鐵路公司의 움직임이나, 國民拒款會같은 大衆運動의 形式이 아닌 紳士들의 聯合行動도 浙省에서는 未曾有의 大規模的인 것이었으니 이는 前武英殿大學士 王文韶가 疏首가된 浙江의 全府(11府) 代表 115名이 연서하여 浙撫에 代奏를 要請한 拒款上奏에 나타나있다.[69] 그들은 그外에도 軍

(62) 盛恩頤等, 「(盛宣懷)行述」, 愚齋存稿 卷首附錄.
(63) Feuerwerker A., China's Early Industrialization; Sheng Hsuan-huai and Mandarin Enterprise. Camb. Mass, 1958 p.78.
(64) 風潮, p. 495
(65) 風潮, pp. 269—71. 및 清季外交史料 卷 206. pp. 381—82.
(66) 風潮, pp. 95—97. pp. 113—118. p. 135.
(67) 風潮, pp. 219—220
(68) 風潮, p. 236
(69) 風潮 p. 39—42.에 全員의 이름이 나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수를 헤아보면 113名인 것같다. 實錄 卷 581. 光緒 33年 10月 19(丁丑)條의 「署浙江巡撫信勤代奏浙江紳士呈稱遵旨自辦鐵路 不借外款下部知之」가 이것을 말함인듯하다.

機處에 拒款을 發電하였고[70] 다시 軍機處에 電하여 拒款上奏의 代奏를 要請하였다.[71] 그들의 活動의 特色은 그들이 浙省全省의 「紳士」의 代表라는 것이었으니 浙路問題는 全浙省의 紳士의 意思를 하나로 統合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外 紳士들의 集團的活動으로서는 朱福詵等 浙江同鄕京官들의 拒款上奏(9月 28日)가 있었으니[72] 現職官吏身分이기는 하나 出身省의 문제에 관하는한 鄕紳의 資格으로 發言하는 獨特한 狀況下에서 그들은 集團的인 行動을 하고 있는 것이다. 翰林院侍讀學士 朱福詵의 9月 27日의 單獨拒款上奏[73] 御史 徐定超의 9月 27, 10月 7日의 2次上奏[74] 御史 趙炳麟과[75] 江春霖(10月 28日)의[76] 上奏등 연이은 上奏도 中央政府나 地方督撫當局에의 强한 壓力作用을 하였을 것이다.

蘇杭甬路線이 大部分 浙江省을 通過하고 있어 特히 浙江省의 反應이 빠르고 예민할 수 있는터에, 杭州에서는 借款導入이 發表된 2日後(地方에 廷寄로 알려진 것은 9月 15日이니 사실이 알려진 1日後), 浙江國民拒款會가 發起되어 仁錢敎育會에서 百餘名이 모여 國民拒款會를 結成하였다.[77] 事務室은 福盛庵巷內의 浙江敎育總會에 둔 拒款會는 幹事로서 王廷揚(孚川)을 選出하였다. 江蘇省前知縣인 王廷揚은 前記한 全浙紳士代表 115名중 金華府를 代表한바 있으며 뒤에 諮議局議員選擧에도 金華府議員으로 當選된[78] 아주 活動的인 開明紳士였다.

(70) 風潮, p. 70
(71) 上同 p. 69. 10月 13日의 일이다.
(72) 上同 pp. 249—252
(73) 淸德宗實錄 卷 580 光緖 33年 9月 己卯(27日)條.
(74) 同上註, 同卷 581. 10月 辛酉(4)
(75) 風潮, p. 241
(76) 淸德宗實錄 卷 581p 光緖 33年 10月 丙戌(28)
(77) 國民拒款會에 대해서는 風潮 pp. 95—98, pp. 113—118, p. 135에 아주 仔細하다. 以下 國民拒款會의 言及은 이에의거함.
(78) 張朋園, 立憲派與辛亥革命(臺北 1969) p. 274. 「風潮」에는 거의 「王孚川」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p. 113의 「浙省設立拒款會」란 記事에 보면 「王廷揚」이 幹事로 任命됐다고 보인다. 이는 p. 113—4의 國民拒款會에 관한 記事(會務擔當者를 「王孚川」이라 함)와 같은 內容을 말하고 있다. 이로써 王孚川과 王廷揚이 同一人임을 알 수 있다.

浙江國民拒款會의 發起趣旨文을 보면[79] 拒款의 主된 根據를 主權剝奪과 國民負擔增加를 들고 있음은 매우 示唆的인 것으로서 이는 拒款會結成當日 王廷揚이 拒款運動은 國民資格으로 하는 것이지 公司의 勢力에 의지하거나 株主의 權利를 휘두르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鐵路問題를 떠나서 「國民」意識의 高揚下에 地方利害와 中央政府間의 對立이라는 양상으로 展開됐던 것이다.

問題가 國民의 次元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 發起文은 紳商學軍 4界의 聯合을 호소하고 있다. 國民拒款會가 主催한 各地方의 代表가 모인 浙江省의 全省拒款大會는 10月 20日에 杭州白衣寺에서 열렸다. 會長에는 11府代表가 王文韶에 간청하여 추대를 수락받았는데 王은 「全體會員이 法律을 遵守할 것」을 조건으로 승낙하였다.[80] 大會에서는 納稅拒否, 江浙獨立 등의 過激主張이 東京同盟會(留學生)의 作用으로 거론됐으나 穩健派에 제압되어 奏效하지는 못하였다.[81] 王廷揚의 提議로 浙江國民拒款會가 常設機關이 된 以來 全浙省의 拒款運動의 中心的역할을 하였으니 浙省拒款運動의 또 하나의 中樞인, 10月 1日에 杭州高等學堂이 發起한 浙江學界拒款會가 (뒤에 浙江學校聯合拒款會로 改名) 스스로 國民拒款會의 補助機關을 自任하고 있는 것은 그 두둘어진 例이다.[82] 寧波 嘉興 湖州 硤石 温州 등에서 개최된 各種 紳商, 學界등의 拒款大會 및 上海에서 개최된 浙江人의 大會등은 杭州國民拒款會의 호소에 호응한다는 電文을 보내고 있으며[83] 餘姚 德清 嘉興 寧波 등에는 分會가 조직되고

(79) 風潮 pp. 95—97

(80) 前揭 趙金鈺 論文, p. 56 所引 滙報(1907. 12. 7字)의 보도,

(81) 顧乃斌, 浙江革命記, 上揭論文 p. 55 所引 및 浙軍第49旅司令部編, 浙軍杭州光復記 (1972)(中華民國開國五十年文獻 二編四册 各省光復 中, 臺北 1961) p. 134參照. 風潮, p. 339 所引浙省留日同鄉致杭州拒款會電은 「鑒政府亡浙浙不忍自亡乞電各府死守獨立不納稅 即舉代表回國」이라 하였다. 浙省留日同鄉會의 9月 28日 모임에 대해서는 風潮 pp. 361—362 參照. 여기의 獨立은 鐵路의 獨立이라는 狹義의 뜻과 浙江의 獨立이라는 廣義의 뜻을 다 內包한 것으로 해석됐으며 우선은 狹義부터 主張하기로 하였다.

(82) 風潮 pp. 355—368. pp. 388—392 p. 414.

있다.[84] 國民拒款會에서는 旅杭蕭山同鄕會, 湖州旅杭商學會, 寧海學界拒款會등에 사람을 파견하여 激勵演說을 하여 運動을 高潮시켜 나갔다.[85] 支援演說活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王廷揚 陶七彪 何閬仙 등이었다.

浙省의 敎員 學生들의 움직임으로는 杭州의 浙江高等學堂이 9月 25日의 校內拒款會를 거쳐 各校聯合大會를 召集한 것이 시작이었는데[86] 10月 1日에 高等學堂에 各學校代表 118人이 참석하여 全浙學校의 聯合된 拒款會(常設事務所는 高等學堂內에 둠)를 두기로 하였다.[87] 「浙江學校聯合拒款會」로 正式 名稱이 결정된 이 기구에서는 10月 18日 즉 國民拒款會의 正式大會에 이틀 앞서 (아마 正式大會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목적으로) 역시 正式大會를 開催하였다. 그뒤 11月 5日과 11月 9日에는 2次 및 3次聯合大會를 개최하고 있다. 浙江高等學堂의 호소에 대한 호응이 明白히 기록된 것으로는 寧波 金華 温州 湖州 台州의 各級學校의 것이 있다.[88] 其餘의 各地의 수많은 學校의 開會가 杭州高等學堂의 호소에 응한 것이라는 直接的인 기록은 없지만 浙江學校聯合拒款會의 움직임의 一環이었을 것은 充分히 推量된다.

한편 北京서는 10月初에 大學堂敎習 程均孫의 主導하에 大學堂이 中心이 되어 譯學館, 實業學堂, 貴胄學堂, 法律學堂, 法政學堂, 順天高等學堂, 民政部巡警學堂, 陸軍部測繪學堂 등에 在學하는 江浙學生이 都察院을 통하여 拒款上奏를 하였고[89] 아울러 拒款을 爲한 全國的인 學生聯合도 計劃되고 있었다.[90] 이에 淸廷에서는 10月 15日, 이 운동의 主

(83) 風潮, p. 90 p. 93 p. 94 p. 331 p. 337 p. 339. p. 354.
(84) 〃 p. 344 p. 373 p. 402 p. 406
(85) 〃 p. 370 p. 368
(86) 〃 p. 130 p. 134
(87) 〃 學校聯合鬪爭에 있어서는 註 82참조.
(88) 〃 p. 332 p. 333 p. 342 p. 359 p. 428
(89) 〃 p. 239 pp. 259—60
(90) 風潮, p. 375. 여기의 風潮所記에 依하면 都察院代奏를 위한 움직임과 京師大學堂을 中心으로 한 全國的學生聯合의 움직임은 10月 3日 전후였다.

動者인 大學堂教習 程均孫을 京師에서 추방하는 한편 學生들의 政事干與禁止를 命令하기에 이르렀다.[91]

한편 江蘇省에서는 浙江보다 늦게 9月 23日에 諮議局組織을 위해 紳士들이 商學公會에서 集會하였다가 결하여 拒款活動을 展開키로 하여, 拒款을 위한 國民路礦公會를 組織할 것에 合議를 보게 되었는데.[92] 그 뒤 26日 預備立憲公會에서 역시 諮議局問題를 논한 끝에 江蘇鐵路協會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여[93] 10月 4日에 上海張園에서 2千餘人이 모여 第1次會를, 6日에는 2次會를 開催하였다.[94] 그 暫行章程에 依하면[95] 이 協會의 宗旨가 輿論을 代表하여 「國民의 資格」으로 拒款에 힘쓴다고 한 점에서 浙江國民拒款會와 같은 趣旨의 것이었다.

江蘇鐵路協會의 實質的領導者는 처음 9月 23日의 모임以來 第2次大會에 이르기까지 계속 主要動議者요 司會者였던 馬良(字 湘伯 舊名建常, 政聞社의 國內總務員)이었다.[96] 江蘇鐵路協會모임과 거의 같은 무렵 蘇州에서 열린 蘇州拒款會는[97] 紳商學界 8~9百人이 모여 개최되었는데 그중 한 演說者가 拒款運動에 있어서는 蘇路公司와 協力하되 만약 公司가 消極的이면 公司를 監督해야한다는 主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본적으로는 利害關係로 묶인 公司株主들이 妥協的 態度로 나올 가능성이 경계되고 있음을 알겠다. 사실 蘇杭甬路에 있어 江蘇省部分은 浙江省에 比해 훨씬 짧아 所要資金도 浙路의 3千萬元의 4分之1밖에 안되었던 것이니[98] 蘇路公司가 經濟的利害때문에 消極的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점 浙江國民拒款會가 浙路公司의 後援이 되겠다고 한 것과 對

(91) 淸德宗實錄 卷 581. 10月癸酉 條 風潮 pp. 239— 240
(92) 風潮 p. 139
(93) 風潮, p. 124
(94) 風潮, pp. 378—382
(95) p. 400
(96) 拒款運動記錄인 「風潮」兩册에 馬良의 이름은 16回나 나타 난다. 다른 拒款運動者의 이름의 빈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97) 風潮 pp. 119—121
(98) 風潮 p. 135

比되는 것이었다.

한편 株主들의 움직임은 어떻하였는가? 前記한대로 淸廷은 9月 14日에 借款導入을 發表할때 株主들을 무마하기위한 配慮를 이미 하였었다. 即 借款과 造路가 別個의 일이 됐음으로 英國側의 借款資金募集에 中國人도 參與할 수 있다 함과, 現在 公司에서 鐵路建設에 從事하는 사람의 地位를 保障해준다는 것 등이었다.[99] 外務部가 江蘇巡撫에게 보낸 電文에도[100] 「紳商으로서는 조금도 손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9月 18日의 兩路公司의 抗議文과[101] 「江浙鐵路風潮」의 編者의 按語에 이미 지적됐듯이[102] 中國商人이 英國商人의 募款에 附隨하여 株式을 購買한다는것은 主客이 전도된 것이고, 兩省의 已募集株式額이 造路에 充分치 못하다는 政府側主張(9月 14日上諭)을 승인한다면 兩省紳士가 다시 英國側株式을 購買한다는것도 說得力을 못갖는 주장이었다. 兩路公司는 이러한 主客顚倒論과 前述한 默許論이 담긴 抗議書를 9月 18日 地方官에게 呈遞하여 代奏를 要求한 것외에 各處에 抗議文을 發送하였다.[103] 한 拒款意見書에[104] 「오늘의 對策은 밖으로는 拒款을 하고 안으로는 集款하는 것」이라하듯 拒款運動은 株式募集과 並行하였음으로 前述한 모든 抗議集會는 抗議文決議와 더불어 거의 모든 경우에 株式購買請求(認股)를 兼行하고 있다. 이 認股의 對象이 곧 兩路公司였다. 江蘇鐵路協會가 主動이된 集款運動의 結果 蘇路公司에의 認股는 1千餘萬元(10月初現在)에 이르렀고[105] 10月 5日의 浙江旅滬 同鄕會에서

(99) 淸德宗實錄 卷 579. 9月壬寅條 및 風潮 p. 35
(100) 風潮 p, 44.
(101) 風潮 p, 270.
(102) 風潮 p, 45.
(103) 風潮 p, 47. pp. 60—61.
(104) 風潮 p, 103 浙人上湯京卿拒款意見書
(105) 風潮 p, 274 蘇路公司覆陳署撫函. 10月 8日의 蘇路股東會에 報告된 額數는 (風潮 p. 412) 千3百 46萬元이고 光緖政要 卷33의 三次劾上奏(10月)에는 千5百40餘萬이라 하였다.

報告된 浙江各府에서의 認股는 2千2百數10萬元에 달하였다.[106] 이러한 認股에는 前記한 10月初의 上奏에서 王文韶가 「傭販婦竪苦力賤役도 모두 公憤에 激發되어 節縮衣食하고 爭先認股하니 마치 온나라가 미친 것 같다」라 하였듯이 御者 庖」[107] 伶人[108] 挑夫[109] 등 下層民의 零股를 포함한 것이었다. 이러한 零股를 받아드리기 위해 兩路가 다 「商辦蘇省鐵路股分有限公司續招新股章程」 및 「奉旨商辦浙江全省鐵路公司招股簡章」을 만들었다.[110]

그러나 認股數는 文字그대로 認股數이지 交股數(株式納入額)는 아니었다. 蘇路의 경우, 10月 8日의 株主會議에서 報告된 交股數는 60萬股에 不過하였다.[111] 그럼으로 地方官이 集股가 많이 됐으니 認股數를 조사하여 그것이 확실하면 그것(民間資本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英國側과 交涉하라고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公司側에 동정적인 건의를 政府에 建議하자[112] 兩路公司側은 資金이란 一時에 必要한 것이 아니니 認股가 전부 一時에 交股될 必要도 없다고 主張하면서 이는 「故發難題陽爲援手 實則絆臂」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商人들의 拒款運動도 광범하였으니 李厚祐가 總董으로 있던 上海商務總會가 農工商部와 外部에 抗議하고 있는 것외에[113] 10月 7日, 千餘名이 모인 抗議集會를 가진 上海南市商界도 따로이 代表 沈懋昭(縵雲)이름으로 巡撫에게 抗議를 提起하였다.[114] 그 外 蘇州, 嘉定, 松江, 嘉興, 閔行, 寧波, 常昭, 杭州, 紹興, 硤石, 通州, 淸江, 張堰, 乍浦등의 地方

(106) p. 385 上揭 王文韶上奏에는 浙路認股令額을 2千7百80餘萬이라 하였다.
(107) 風潮, p. 145
(108) 風潮, p. 419
(109) 風潮, p. 349
(110) 風潮, pp. 278—281
(111) 風潮, pp. 409—413
(112) 風潮, pp. 246—47
(113) 風潮, pp. 76 및 pp. 350—51
(114) 風潮, pp. 340—405 및 pp. 319—20

에서 商會名義의 抗議가 表明됐고[115] 그外 紳商學界 또는 商學界라는 이름으로 抗議를 한 곳으로 기록된 것은 金山, 寧波, 湖州, 甬江, 嘉興, 常州, 硤石, 紹興, 南昌, 台州, 處州, 石門, 蘇州, 常州, 昆新, 海寧等地이고[116] 地域單位로 拒款會를 開催한 곳으로는 紹興, 寧波, 鎭海, 湖州, 無錫, 德淸, 嘉興, 楓涇, 蘇州, 海寧이 기록되어있다.[117] 그밖에 上海에서는 浙省同鄕會가, 杭州에서는 他地方出身者의 拒款會가 자주 열렸다.[118] 이같은 地域單位抗議運動의 主導者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一般的狀況으로보아 紳商學界의 聯合된 行動으로 理解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9月 16日에 發表된 浙江國民拒款會의 發起趣旨文(普告文)에서 紳商學軍四界의 聯合을 호소하고 國民이란 뜻안에 이 四者를 포함시키면서 「地方公益의 大害를 앞두고 同舟共濟, 利害相關함으로 從來의 意見의 차이를 없애고 團成一體」하자고 한 것은 前述한바와같이[119] 中央政府에 對抗하는 地方利害의 對立이라는 점에서의 紳·商·學 三界의 團結의 必要와 계기를 이룬 拒款運動이 마련해주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四界中 軍界만은 그 성격상 集團的行動에의 참여를 볼 수 없으나 杭州의 新軍一標의 兵士 그리고 杭州駐防八旗조차도 國民拒款會의 호소에 응하여 認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120] 中央政府에 對立되는 地方利害의 一致는 아주 견고한 것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紳·商·學界의 聯合은 民衆의 광범한 支援을 얻고 있다는데에서 더욱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

(115) 風潮, pp. 81—83, pp. 91—92, p. 95, p. 319, p. 327 p. 338 p. 343 p. 348 p. 351 p. 394 p. 401

(116) 風潮, p. 78, 83, 87, 90, 94, 305, 332, 338, 345, 346, 349, 394, 405

(117) 風潮, p. 121, 124, 345, 372, 402, 403, 406, 407, 408, 483

(118) 上海는 行政的으로는 江蘇省에 屬해 있지만, 實際로는 浙江省 特히 杭州와 一體가 되어 活動圈을 이루고 있었다. Mary B. Rankin의 Early chinese Revolutionaries, Radical Intellectuals in Shanghai and Chekiang 1902—1911. (Camb. Mass. 1971) 이라는 書名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同書序文 p. i 參照.

(119) 風潮, pp. 95—97

(120) 風潮, pp. 416—417, 489—90

社會의 下層民들까지도 拒款認股에 열렬히 應하였다함은 旣述하였거니와 그들의 行動이 大規模의 集團的인 것임이 우선 주목된다. 杭州의 挑夫二千餘人이 零股百分을 認股하여 浙撫에 具稟한 경우같은 것이 그 例이거니와[121] 이들의 態度가 過激化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음은 浙江前記挑夫들의 具稟에 대한 批文에서 巡撫의 「稟詞稍有失當」이라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上海에 조직된 保亡會라는 「不逞之徒」가 조직한 團體가 「措詞悖謬」한 匿名의 傳單을 各處에 뿌리는 등 활동한데 대해, 上海道臺가 그 措詞로 보아 「非上流社會所爲」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도 그것이 民衆들의 急進的組織인 것이 짐작이 가는데, 上海道臺는 蘇路公司當局者에게 「設法勸令 力守和平 免激意外」라고 당부하여 그들이 過激化를 걱정하고 있다.[122] 拒款運動을 報道한 한 佛蘭西記者는 6千名의 노동자가 울부짖으며 抗議하고 2千名의 乞人 그리고 俳優, 僧侶 등도 抗議에 참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123] 이로보아 民衆들의 行動이 일마나 격앙된 것이며 얼마나 規模 큰 集團的인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앙된 集團行動이 과격하게 行動化하기는 쉬운 것이다. 이런 狀況下에서 集款運動은 그들의 過激化를 막는 安全辨의 役割을 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浙江巡撫는 杭州의 挑夫들에게 「仍安分營生 銖積寸累 儲存股款 以踐前言(•欲謀公益盡義務)」하되 「不得道謀聚議 勒派生事」라고 타일르고 있는 것이다.[124] 寧波에서는 絆商들이 巡撫에게

> 寧波의 勞動者들은 각별히 거칠어서 순리로 깨우치기가 어렵다. 현재는 여러가지 수를 써서 안정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路股鐵路株式을 모음으로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

(121) 風潮, pp. 489—90
(122) 風潮, p. 276
(123) Jean Rodes; Chine Novelle (paris 1910) 所引의 西洋記者의 보도, Mary C. Wright, Introduction to China in Revolution: The First Phase 1900—1913. New Haven and London 1968 所引.
(124) 風潮, p. 490

라고 하여 속히 이 사실을 電奏해 달라고 하고 있다.[125]

女性들의 拒款運動이 활발했던 것은 大衆들의 위기의식의 等質性을 表現한 것이라 보겠는데 上海선 10月 4日에 民立女中강당에서 女界保路會가 設立되었고[126] 上海의 愛國女學校에 事務所를 두기로 한 「女國民拒款會」(男子의 國民拒款會의 對)는 拒款運動의 必要와 方法을 白話文傳單으로 호소하고 있다.[127] 또 10月 3日에는 上海의 喬家浜의 初級小學校에서 初級小學校의 女教員을 中心으로 하여 40餘名이 모인 「女界拒款集股會」가 열렸다.[128] 그外 上海·松江의 女學校에서 拒款集會가 열리고[129] 常州 寧波서도 女界保路會 또는 (女界)拒款會가 열렸다.[130]

이같은 大衆行動이 그 效果를 위해 集股나 抗議文發送以上의 團體行動 即 罷工, 罷市같은 것이 擧論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는데 浙江國民拒款會에서 이미 罷工이 거론되었다가 張元濟의 反對로 成議되지 못한 일이있는데[131] 紹興에서의 3百餘名이 모인 拒款大會에서는 政府가 借款을 계속 밀고나갈 경우 罷課, 罷市하기로 결의하였었다.[132] 杭州서의 國民拒款大會에서 宣布된 「本旨」에는 政府가 借債를 强要하면 練兵費 및 各項雜稅를 納付하지 않겠다는 것이 包含되있는데[133] 실제로 杭州商人들은 房捐을 拒否하여 路股를 사겠다고 나섰다.[134] 浙江側의 拒款指導者 湯壽潛은 納稅拒否같은 과격한 行動은 삼가라고 간청하였었지만[135] 言論界에서는 歐州立憲國의 「不出代議士, 不納稅」의 例에 좇아 納稅를 拒否하

(125) 風潮, p. 349
(126) 風潮, p. 130, 133, 377
(127) 風潮, p. 327
(128) 風潮, pp. 137—8 p. 374.
(192) 風潮, p. 95, 131, 342, 374
(130) 風潮, p. 407, 409
(131) 風潮, p. 388
(132) 風潮, p. 126
(133) 風潮, p. 388
(134) 風潮, p. 273
(135) 風潮, 同上註

여 政府를 탄핵하라고 호소하고 있었다.[136]

中外日報에 실린 한 論說이

朝廷이 江浙을 헌신짝처럼 거리낌없이 버리면 江浙人도 속히 自保之策을 마련하여…피와 鐵로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바를 행하라

라고 한 것은[137] 「浙省留日同鄕會致杭州拒款會電」에서

정부가 浙省을 亡하게 하여도 浙省스스로 亡할 수는 없다. 各府에 發電하여 「獨立」을 死守하고 納稅하지 말도록 하라.

고 한 것[138]과 同軌의 것이었다. 「風潮」의 編者도

朝廷은 公理를 무시하였다. 그렇게 되면 朝廷이 發하는 命令에 대하여 臣民은 服從해야 할 義務가 없다.

고 淸朝否認으로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139]

이러한 主張의 背景이 된 것이 拒款運動의 激한 一般的 분위기였다. 前述한 杭州에서의 國民拒款會에서는 江蘇人 費仲篪의 「不可專恃和平 遷延貽誤」 같은 과격한 主張대신 平和的方法을 쓰기로 결정은 됐지만[140] 이는 王文韶以下 11府紳士 115人의 呈請代奏文에 보인 것처럼 暫時는 暴動을 免하게 할 수 있어도 앞으로는[141] 보장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하에서의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 이 拒款會의 분위기는 「浙紳致(浙省)鐵路總協理電」이 「(·군중이)격렬해져서 울부짖은 자까지 있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정도 알 수 있다.[142] 浙江按察使는 9月 27日에, 慶親王에게 況狀을 알리는 전문에서 「浙江人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각별히 분격하고

(136) p. 471 所收, 高覲, 宣布拒款最後之方法.
p. 466의 敬告江蘇商界同心御悔書(錄自時報) p. 79의 「寓滬浙江人致中外日報館函 (錄自中外日報」
(137) 上註의 中外日報所載論說
(138) 註(81)參照.
(139) 風潮, p. 45
(140) 風潮, p. 116
(141) 風潮, p. 41
(142) 風潮, p. 73

있다. 며칠전 이 문제로 하여 피를 토하고 죽은 사람까지 생겨 民心은 더욱 분격하였다. 만일 革命黨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暴動을 일으킨다면 大局이 어찌될지 모르겠다」라 한 것이라던지[143] 杭州將軍이 外務部에의 電文에서 「浙江省全體가 놀라 떨고 있다……폭동이 크게 일어날 상황이다……(그럼으로) 나도 아무말 않고 있을는 수 없다」고 하고 있는것[144] 등에 잘 나타나 있다. 10月 7日 軍機處가 兩江總督 및 蘇·浙兩撫에게 「黨匪가 從中煽惑하여 겉으로는 路權爭取를 내걸고 속으로는 叵測을 꾀할지도 모르니 留心訪查하라」고 命令하고 있는 것도[145] 上記한 現地事情을 報告받은 연후의 일이었다.

실제로 이무렵 江浙一帶에는 秘密結社組織의 준동이 현저하였으니 兩江總督蘇浙兩撫등의 報告에 보면[146] 蘇浙交界인 松·太·嘉·湖州의 梟匪(鹽梟)가 「日形猖獗」하여 67個處에서 同時起事하고 있다. 拒款活動이 활발하였던 海寧 海臨 桐鄉 硤石等地에서 「匪黨」은敎堂·學堂을 부서 官軍과 싸웠다. 浙江의 桐鄉에서는 縣民이 「匪類」를 이끌어 店舗 釐卡 學堂 敎堂을 부시고 縣城까지 쳐들어갔다. 이들 匪類의 活動은 政府로 하여금 甘肅提督姜桂題所部의 軍隊를 南下시켜 剿匪作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147] 우리는 이러한 「匪類」의 活動이 拒款運動과 直接 연결됐다는 文字上의 증거는 아직 갖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 「匪黨」의 움직임이 拒款運動을 불러 일으킨 江浙一帶의 不安에 便乘하였을 것이라고는 넉넉히 推量할 수 있을 것이다. 時報의 「論勒借路款之影響」이라는 論說이 借款强要의 영향의 첫째를 「革命排滿黨之驟增勢力也」라고 前提한 다음,

(143) 風潮 p. 55 및 p. 137

(144) 風潮 p. 56

(145) 清德宗實錄 卷 581 光緒33年 10月乙丑條. 33年 11月癸丑(26)에도 다시 江督, 蘇浙兩撫에게 嚴密防範하라고 命하고있다(上同卷 583). 風潮 p. 239

(146) 清德宗實錄 卷 584光緒33年12月丁卯(10)條. 風潮 p. 248. 이는 前記한 10月 7日의 軍機處電文(p. 239)에의 答電, 그리고 海防檔戊. No 388號 p. 549의 江督致外部電 參照.

(147) 이 무렵의 民衆暴動에 대해서는 山下米子, 辛亥革命の時期の民衆運動, 東洋文化研究所記要 第37册(東京 1965) pp. 126—138 參照.

立憲의 空虛함 때문에 人心이 半이 떠났고, 그리고 徐錫麟의 安徽巡撫暗殺事件을 계기로 한(浙江省의) 慘獄에서 많은 無辜가 被害를 입음으로서 人心이 이반됐고, 旗人授田方針때문에 (旗人이 많은 浙江省이니만큼) 또 人心이 이반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논설은 계속하여 이런 狀況下에 路事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로부터 天下之人은 朝廷이 우리 백성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였다. 그러니 革命黨이 威勢를 떨칠 것이요, 未入黨者도 入黨을 생각하게 될 것이 아니냐했다.[148] 徐錫麟起義는 五月末이고 그와 연관되어 紹興서의 起義가 누설되어 女烈士 秋瑾등이 체포된 것이 六月初였으니 時間的으로 보아 이 拒款運動의 直前의 일이었으니 이 浙獄이 끼친 社會的不安, 이 獄에 대한 不滿들이 拒款運動에 結集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秋瑾의 活動이 會黨들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아 上述한 「匪類」등의 活動도 浙獄과 有關했을 것이라는 推測도 또한 可能할 것이다.

路事를 둘러싼 輿論助成과 領導에 있어 上海의 各新聞이 作用한 바는 莫大하였으니 「風潮」에 收錄된 拒款支持論說로서 보면 時報 中外日報 神州日報 新聞報 申報등이 특히 활발하였던 것같다. 新聞의 役割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當路者의 운동에 대한 견해이다. 外部尙書 袁世凱는 激烈(拒款)鬪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張之洞의 憂慮에 대하여 「그런 謠言은 報館이 만들어낸 것이니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고 있다.[149] 이는 이 운동에 있어 新聞의 役割을 誇大하게 評價한 것이지만 어떻던 新聞의 影響力의 莫重함은 승인하는 것이 되겠다. 江浙紳士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던 盛宣懷가 「南中士夫喜聽報館學生之言論爲進退」라고 하고 또 湯壽潛을 비난하여 湯이 「新聞과 學生에 아첨한다」고 하고 있는 것도[150] 이 또한 新聞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말하는 것이라 보겠다.

(148) 風潮, pp. 196--97

(149) 風潮, 495

(150) 海防檔 戊, No. 595號(宣統 3年 2月 22日)의 「盛宣懷致那桐(·外部 會辦大臣)函」에 포함된 「滬杭甬問題」라는 메모에 보인다.

4. 存款章程廢止運動과 湯壽潛免職抗議運動

存款章程의 成立으로서 江浙의 拒款運動은 一段落됐으나 문제가 그것으로 완전히 결말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英國公使는 34年 6月 8日, 借款合同 第17條에 따라 英國人總工程司의 選定을 速히 하라고 促求하였다.[151] 第17條는 그 뒤도 여러가지 面에서 重要한 作用을 한 條項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152]

> 이 鐵路의 建造工程과 모든 管理權은 전적으로 中國國家가 辦理한다. 建造工程함에 있어 郵傳部는 이 鐵路의 總辦으로 하여금 英國人總工程師一人을 選定任命하게 할 수 있다……工程이 完了된 뒤 中國國家는 總工程師 1人을 任用하여 일을 맡긴다. 이 總工程師는 借款期間內에는 반드시 英國籍 사람이라야 한다.

지연끝에 總工程師가 任命된 뒤에도(光緖 34年 9月 28日) 總辦과 總工程司가 上海에 到任한지 2個月이 지나도 兩路公司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있다고 英國公使는 抗議하고 있다[153]. 이로보아 兩省에서 어쩔 수없이 借款合同에 굴복은 했으나 그것에 대한 저항은 끈질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6月8日에 總工程司로 선정된 富爾德는 10月 21日에 가서야 겨우 兩路公司側과 雇傭契約을 맺었으나[154] 여전히 兩路公司側은 總辦 施肇曾이나 工程司 富爾德에게 非協助的이었고 政府가 設立한 滬杭甬路局은 11月初가 되어도 立局을 하지 못하였다.[155] 英國公使의 抗議를 받은 外部가 郵部와 協力하여 사태수습에 나선 결과 11月中旬頃에 가서

(151) 海防檔 戊 No. 414 p. 656 外部收英使朱爾典照會(光緖 34年 6月 8日)
(152) 上同 註 (44) 參照
(153) 上同 No. 450 p. 707 外部收英使朱爾典照會(光緖 34年 9月 28日)
(154) 上同 No. 455 p. 715—716. 外部收郵部文(光緖 34年 10月 27日)
(155) 上同 No. 457 p. 717—718. 外部收英使照會(光緖 34年 11月 10日)

야 비로소 兩人이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156]

存款章程의 執行을 둘러싸고도 紛糾가 쉬지 아니하였으니. 宣統 2年 正月現在로 24個月이 경과됐는데도 180萬兩밖에 兩路에게 支給안되었다. 章程에 依하면 存款額이 最高 千萬兩 最小 750萬兩으로 規定되어있는데 그것의 約 10分之 1가량에 허당하는 額數밖에 支拂안된 것이니 이는 24個月이 지나도 支給이 완전히 안되면 存款章程 自體는 廢止된다는 存款章程自體의 規定에 해당되는 일이었다.[157]

存款의 支拂이 왜 이렇게 不振하였는가를 밝힌 資料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지만 郵傳部尚書 唐紹怡(儀)(宣統 2年 7月任命)가 江浙地方의 煽動活動은 資本缺乏때문에 제물에 시들 것이라고 한 것[158] 이라던지 英國人記者의 報道(宣統 6年 1月)에 「원래 모집한 資本은 고갈되고 株主들은 展望이 흐려져서 額面價格의 70%로 株券을 팔아넘겼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159] 類推하면 江浙路公司側의 降伏을 기다리기위한 方策이었던 것도 같다.

郵傳部가 存款章程을 充實히 履行할 생각이 아예 없었음은 後述한 바와 같이 郵部가 借款을 造路工事에 쓰지 아니하고 江浙路의 株券을 收買하는데 쓰려한 것으로도 짐작이 간다. 宣統 2年 3月頃 郵部는 銀公司에게 근자 兩公司가 매우 拮据하니 이때를 타서 鐵路問題를 아주 結末지워버리는 것은 아주 妙策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宣統元年冬間에 이미 商議됐던 辦法이라는 것이다.[160] 이러한 속셈이 있었으니 蘇浙路兩公司에게 存款

(156) 海防檔戊, No. 461 p. 721—22 外部收郵部文 附 梁士詒致濮蘭德函(光緒 34年 11月 22日)

(157) 東方雜誌 7年 10期, 中國大事記補遺 p. 78 浙路公司呈郵傳部文.

(158) Bland. J.O.P. Recent Events and Present Policies in China, (London 1912) p. 239

(159) 上揭書 p., 243 所引 타임스紙北京駐在記者의 上海發信. 海防檔 戊 No. 585 p. 943 外部收郵部文에 蘇路公司致郵部文(宣. 三, 正, 20日)이 附錄되어 있는데 그 中에 認股한 股份2千萬元이 相率觀望하여 不徵되여 北路建設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하였다.

(160) 前揭海防檔 No. 526 p. 822 外部收郵部文(宣統 2年 3月 19日)

을 제대로 내줄리가 없었던 것이니 劉錦藻는 鐵路總局長 梁士詒가 (일부러) 내주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다.[161]

兩路側에서도 存款章程을 멎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拒款之志未達」로 表現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162] 결코 滿足스러운 것이 못되었기 때문에 存款章程에 規定된 資金(借款)에 손을 아예 안대려는 「不動存款之說」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니[163] 이 역시 存款章程에 規定한 대로의 執行을 어렵게만든 要因이었던 것같다.

郵部가 借款을 가지고 兩路株券을 買收함으로서 兩路를 國有化한다는 것은 英國側의 집요한 要求와 原則的으로 一致하는 것이었다. 宣統 2年 5月의 英國公使의 照會에는 借款合同17條(鐵路建造工程과 管理權은 中國國家가 갖는다)에 依據하여 中央政府(中國國家)가 權限을 모두 收回하라고 요구하고 있고[164] 宣統 3年 2月의 英使照會에는 外部와 郵部가 借款合同을 違背하여 몰래 兩路를 兩辦케하여 따로이 存款章程을 마련한 것은 英國側을 欺騙한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것이다.[165]

郵傳部는 우선 蘇路의 股份을 收購하기로 하고 그 資金을 借款된 150萬파운드중에서 마련하려고 200萬兩을 英國側에게 要求했다. 借款用途가 달라지기때문에 英國側의 諒解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英國側은 借款合同17條대로 中國政府가 「全路」를 收回하지 않는한 그 要請에 應할 수 없다고 더욱 강경하게 對하였다.[166]

한편 浙路側은 郵部의 存款章程의 不履行을 理由로 들어 宣統 2年 5月,

---

(161) 通考 卷 366 p. 11109. 海防檔戊. No. 559. p. 899 「外部收郵部文付鐵路總局與中英公司等來往函電」(宣統 2年 10月 2日)에서 梁士詒는 蘇路回收資金으로 2百萬兩을 쓸 것을 中英公司에 要求하였음.

(162) 註 159 所引 海防檔所收文

(163) 通考 卷 367 郵傳 8. p. 11116 劉錦藻按語.

(164) 海防檔 戊 No. 529 p. 825 外部收英署使照會(宣統 2年 5月 9日)

(165) 海防檔 戊 No. 589 pp. 947—949. 外部收英使照會(宣統 3年 2月 4日)

(166) 海防檔 戊 No. 559 p. 899 外部收郵部文付鐵路局與中英公司等來往函電. (宣統 2年 12月 2日)

株主會議에서 存款章程에 規定한데따라 그 章程을 廢棄하기로 이미 결의하였거니와[167] 그다음해인 宣統 3年正月 18日, 蘇路에서도 臨時株主會議를 열어 存款章程이 이미 失效하였음으로 滬杭甬路局을 月內에 철수하고 英國人工程司도 月內에 辭退케 할 것과 이미 領收한 借款(60萬兩)은 公司가 입은 여러가지 損害를 補償하는데 쓸 것을 의결하였다. 蘇路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外部는 借款合同에 違背되기때문에 절대로 准行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였거니와[168] 뒤에 淸朝의 命運을 결정한 外國借款을 드려와 幹路를 건설한다는 鐵路國有化政策이 發表된 것은 宣統 3年 4月 11日이었으니[169] 借款導入反對의 主張은 이에 根本的으로 그리고 公式的으로 否認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리하여 存款章程에 대한 反對鬪爭은 결국 그해 8月의 辛亥革命을 맞아서야 비로소 段落되거니와 存款廢止運動 그 自體는 아니지만 江浙鐵路紛糾의 一環으로 이해되어야 重要한 事件으로 浙路公司總理 湯壽潛免職事件이 있었다.

宣統 3年正月, 政府當局에서 東南士大夫의 3大領導者인 張謇 鄭孝胥 湯壽潛에게 外債借用可否를 물었을때 鄭은 全的으로 찬성하였고 張謇은 借款하되 그 用途가 문제라고했고 湯은 「必不可借 借則國亡」이라 하였다.[170] 이로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강경한 原則論的 國民主義者였던 湯壽潛을 浙路問題에서 손떼게 하려는 노력이 淸廷에 依해 집요하게 行하여졌으니 光緖 29年 道銜을 賞給받고 署兩淮鹽運使로 擢授됐으나 不就한바 있던[171] 湯壽潛을 宣統元年 6月에 雲南按察使로 任命發令해 놓고는 商律에 의거하여, 總理를 따로 선출하도록 浙路公司에게 命하였던 것이다.[172] 이에 浙路公司는 7月에 全浙保路會를 열어 政府의 指示와는 달리 湯의 留

(167) 東方雜誌 7年 10期 pp. 78—79
(168) 海防檔 No. 587 p. 946 外部發郵部文(宣統 3年 2月 3日)
(169) 宣統政紀 卷 52 宣統 3年 4月己卯(11日)
(107) 張謇, 嗇翁自訂年譜, 張怡祖, 張謇傳記附錄(臺北 1965 再印) p. 66
(171) 淸德宗實錄 卷 524 光緖 29年 12日 庚戌(1)
(172) 宣統政紀 卷 16. 宣統元年 6日丙午(29)

任을 決議하였다. 理由로서 郵部에 提示한 것은 다른 鐵路의 경우 官職을 簡授받아도 總理改選은 命令받지 아니하고 있는데 왜 浙路에서만 總理를 改選해야 하느냐는 것이었고, 浙江巡撫에게 提示한 理由에서는 存款章程廢止運動을 위해 湯이 必要하다는 것도 말하였다.[173] 湯에 授官한 것은 湯을 浙路公司에서 떨리하기 위한 術策으로서 당시 널리 해석되었던 것이다.[174] 同時에 그것은 郵部가 兩路를 收用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도 풀이됐다.[175] 雲南赴任을 拒否한 湯을 淸廷은 다시 10月에 江西提學使에 任命했으나[176] 湯은 이역시 拒絶하였다. 江西提學使 辭退는 宣統 2年 正月18日에 允准됐거니와[177] 이러한 狀況下에서 前記한 5月 13日의 浙路 株主會는 存款章程廢止를 위해 湯을 上京시키기로 의결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北上을 서두루고 있는터에 7月 13日에 盛宣懷에게 本職에 回任(入京視務)하라는 上諭가 發表된 것이다.[178] 前述한대로 郵傳部右侍郎으로 任命됐다가 「默許論」의 責任을 물어 執務停止를 당했던 盛으로 하여금 애초 發令된대로 郵傳部右侍郎의 實務를 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面에서 江浙紳士의 큰 不滿을 사기에 足하였다. 첫째는 盛宣懷의 잘못된 默許論이 拒款廢約運動을 誤導하여 「拒款의 뜻을 未達케하여」 存款章程을 맺지 않을 수 없게 하였는데 그러한 盛이 이제 郵傳部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充分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存款章程廢止運動을 展開하고 있는터에 江浙紳士와 敵對된 盛이[179] 郵傳部의 要職으로

(173) 東方雜誌 6年 9期, 記浙路公司總理簡授滇泉事, 同 6年 10期, 續記浙路公司總理簡授滇泉事.

(174) 朱慈恭, 湯壽潛傳, 國史館館刊 1—2 (1948. 3) pp. 80—81. 具體的으로는 郵傳部尚書 徐世昌의 「陽禮陰去」策으로 해석되었다(通考 卷 366 郵傳7 劉錦藻按語 p. 11109參照.)

(175) 同 註 174

(176) 宣統政紀 卷 24 宣統元年 10月壬辰(16) 上揭 湯壽潛伝에 의하면 雲南按察使에 任命된 湯은 辭退의 뜻과 아울러 入對할 뜻을 表하여 入京, 監國王을 만나 袁世凱除去를 建言하고 아울러 萬言書(存亡大計標本治法摺)를 올렸다. 이 摺이 올라간 그날 江西提學使로 改授되고 있다.

(177) 東方雜誌 7年 2期(宣 2, 2) p. 32

(178) 宣統政紀 卷 38. 宣統 2年 7日甲寅.

(179) 盛宣懷, 致郵傳部左侍郎吳(光緒 34年 5月 27日), 盛宣懷未刊信稿(北京 1960) p. 117

돌아온다는 것은 存款章廢止運動의 展開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江浙紳士不滿의 結果가 7月 18日의 보기 드물게 激烈한 語句로 된 湯壽潛의 盛宣懷糾彈文에 나와있다.(180) 그 要點은 大略 다음과 같다.

「盛宣懷는 借款의 罪魁이고 또 拒款의 禍首이다. 그 때문에 江浙은 借款을 받아드려야 하게 되었는데 晏然回任한 그 盛宣懷로부터 다시 指揮를 받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뿐아니라 盛은 損中益外 假公肥私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登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도 사람인데 어찌 官職辭退를 좋아할 것인가? 그런데도 辭官을 고집해온 것은 先帝(•光緖帝)가(•浙路의)商辦을 허가해주신 뜻을 살리고저 함이요 全省人이 나에게 맡긴바를 重히 알기때문이다. 만약 軍機處가 盛이 그르다고 보면 郵傳部回任命을 取消하거나, 鐵路와 關係가 없는 일로 옮길 것이며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나를 浙路에 干與하지 못하게 하기바란다. 그렇게 되면 나도 中國男子이니, 고개를 숙이고 罪魁禍首의 指揮를 안받게 되어 좋다. 감히 高級官僚를 비방한 죄로 나의 목을 베어 거리에 매달아 盛宣懷에게 사과케하고 先帝의 뜻을 받들어 鐵路를 商辦하고 있는 사람에게 본때가 되게하기 바란다. 나는 先帝의 殊知를 입은 바 있으나 배알할 기회가 없었음이 매양 아쉬었으니 이제 죽어 하늘로 올라가 先帝를 만나뵙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湯의 이러한 과격한 表現은 拒款廢約運動에서도 部分的으로 나타난 바 있으니「男子로 태어나 그(•英國側)를 위해 奴隷가 될 수는 없다」(生爲男子 無顏爲彼奴隷)(181) 「주검을 각오하고 싸우겠다」(182) 「차라리 바

에 「蘇杭甬戰勝朝廷 彼等驕盈日甚 動輒開會 局中之爭較 皆從局外之橫議激之近來報紙皆謂收贖(•江浙路借款問題)癸端於弟……」라 하였다. 兩側의 對立된 感情을 이로서도 알 수 있다.

(180) 東方雜誌 7年 8期(宣 2.8) 中國大事記 및 國風報 1—20 (宣 2.7) 文牘. 通考 卷 370 郵傳 11 p. 11151.

(181) 風潮, p. 60 又致北京浙路辦事處電

(182) 風潮, p. 62 浙路公司致粵公司電, p. 350 湯京卿覆嘉興中學電.

다에 빠져죽겠다(寧蹈東海)」[183]는 등의 격렬한 語句가 그것이다. 湯의 격렬한 盛宣懷糾彈에 대하여 軍機處는 湯이 제의한 擇一. 即 盛에 대한 命令을 撤回 乃至修正하던가 아니면 湯스스로를 鐵路業務에서 손떼게 하던가의 擇一중 後者를 擇하였으니, 湯壽潛은 妄言으로서 虛名을 얻으려하였으니 그를「革職」하여 鐵路일을 보지못하게 함으로서 본데를 보인다는 上諭가 내린 것 19日 이다.[184] 여기서 革職이라함은 과거 누차 湯에게 授官함으로서 물러서게 하려했던 浙路公司總理職의 免職을 뜻하는 것이었으니 이는 淸廷이 東南紳士와 正面對決하겠다는 姿勢나 다름없었다. 이리하여 湯壽潛免職措置取消를 要求하는[185]「民情若狂」하는 거센 反中央政府運動이 다시한번 일게 된 것이다. 湯은 奉旨後 스스로 公司總理職에서 물러났지만 浙路公司 理事會(董事局)는 即時郵傳部와 農工商部에 電文을 보내 反對를 表明하였다.[186] 그 內容인즉 公司律에 依하면 總理의 選出辭退權은 股東會(株主會)에 있으니 朝廷에서 干涉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政府서 마음대로 浙省全人民이 仰望하고, 商人(民間)이 선출한 總理를 免職시킨다면 中國의 民間會社(商辦公司)는 이를 계기로 자취를 감출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8月 8日 浙路臨時株主會가 千 2百餘人이나 參集한 가운데 上海에서 열려, 다음날 全員이 杭州에 가서 浙江巡撫에게 代奏를 要請하기로 議決하였다. 9日 杭州에 도착한 株主들은 10日 臨時株主會를 續開하여 全員이 巡撫를 만나 代奏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전달하였다. 진정서는 浙路公司副理 2人의 名義로 된 公司로서의 것과 御史 徐定超 등을 代表로 한 株主들의 것이 있었다.[187]

(183) 風潮, p. 445 申報의 「敬告蘇浙拒款會」에 言及됨
(184) 宣統政紀 卷 39 宣統 2年 7月庚申條
(185) 浙江巡撫의 上奏에 浙江의 분위기를 이렇게 表現하였다(東方雜誌 7年 9期 中國大事記補遺 p. 69).
(186) 東方雜誌 7年 9期, 中國大事記 p. 110—111
(187) 東方雜誌 7年 9期, 中國大事記補遺 pp. 68—69

股東들의 이러한 活動이 있기 전에 寧波에서는 數萬人이 모인 抗議集會가 있었고 各處의 華僑는 抗議電文을 보내왔고 이미 開設된 諮議局은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臨時會를 열 것을 巡撫에게 要請하기에 이르렀다.(188)

「民情若狂이니 조금이라도 措置가 不適切하면 民氣를 傷할가 두렵다」고 結論하여 湯壽潛의 죄는 인정하되 「在路自效」 (路事를 繼續맡음으로서 贖罪)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浙江巡撫의 타협적인 意見에 대한 政府의 8月 13日의 대답은 단호한 拒否였다. 아울러 人民의 聚衆紛擾를 막지못하면 순무를 문책하겠다는 강경한 命令도 附隨되었다.(189) 8月 21日에는, 鐵路公司는 國家와 特別한 關係가 있음으로 國家의 特別한 監督을 받아야 한다. 그럼으로 一般公司의 경우에는 總協理를 株主들이 選任解任하더라도, 鐵路公司의 경우만은 選任後 다시 政府가 札派, 奏派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任免權은 政府에게 있다고 主張하는 郵傳部主張이 政府見解로 確定되었다.(190)

이에 대해 浙路公司側은 9月 14日, 上海에서 다시 股東會議를 열어 行政「命令」을 가지고 「法律」(公司律)을 變更할 수는 없다고 郵傳部見解를 反駁하고 아울러 在籍翰林院侍講學士 朱福詵, 分部郎中 孫誦洛, 在籍農工商部主事 王錫榮 前廣西候補知府 樓守愚 前雲南候補直隸州知州 沈宗傳, 揀選知縣祝震등 6人을 代表로 뽑아 郵傳部에 보내어 力爭하기로 하는 한편 郵傳部에 대해 存款章程廢止의 뜻을 다시 밝히는 呈文을 올렸다.(191) 北京에 도착한 代表들은 資政院에 說明書를 올려 郵部의 法理論을 반박하여 浙路公司는 「完全商辦」임이 (存款章程에서) 政府에 依해

(188) 同上註
(189) 宣統政紀 卷 40 宣統 2年 8日 甲申(13日)條
(190) 宣統政紀 卷 41 宣統 2年 8月 壬辰條및 東方雜誌 7年 10期 中國大事記補遺 pp. 69—70.
(191) 東方雜誌 7年 10期 中國大事記補遺 pp. 77—79

승인 됐음으로 普通公司와 달리 취급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192] 郵傳部를 訪問하여서는 署左侍郎 沈雲沛에게서 存款章程이 章程대로 實行되지않고 있음으로 失效自廢라는 言質을 받았고[193] 끈질기게 英國公司側을 두둔하는 盛宣懷로부터도 결국은 存款章程이 廢止될 것이라는 다짐을 받았다.[194] 但 湯免職件에 대해서는「奏派」이기 때문에 一般公司와 달리 取扱해야 한다는 立場을 變更시킬 수 없었다.[195]

한편 앞에 言及한 것처럼 湯壽潛의 免職事件은 諮議局에서의 主된 爭點이 되었다. 廢約拒款運動때는 紳士들의 見解를 集約할 機關이 따로 없었지만 이제는 紳士들의 利害를 代辯할 수 있는 機關이 이미 設置되어 있었다.[196] 一般的으로 諮議局의 性格이 그러할 뿐 아니라, 具體的으로는 浙江 11府의 紳士代表로서 拒款陳情에 署名한 113(註 69參照)名의 紳士中, 浙江諮議局議員으로 進出한 사람이 112人의 議員中 王廷揚을 비롯하여 11人이나 되고 있는것이다. (이에대해서는 後述 하겠다)[196] 浙江諮議局에서는 浙江巡撫에게 臨時會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巡撫는 定例會期(9月 3日)가 머지않다는 이유를 들어 許可하지 아니하였다.[197] 그뒤 9月 3日 正式會議가 열리자[198] 張傳保議員이 議事日程變更動議를 내어 浙路問題를 먼저 다루기를 제청하여 全員贊成을 얻게 되었다. 이

(192) 東方雜誌 7年 11期. 中國大事記補遺 pp. 96—78

(193) 東方雜誌 7年 12期. 中國大事記補遺 pp. 107—108.

(194) 盛은 朱福詵등 代表에게 「郵部에게 資金을 申請해도 내줄 돈이 없다. 郵部에게 收買를 요청해도 역시 郵部에 資金이 없어 응하지 못할 터이니 그러면 合同, 章程이 저절로 廢止된다」고 하였다」(註 193 參照). 이는 마치 浙路의 立場을 동정한다는것 같지만 바로 이무렵 郵部에서 蘇路를 存款章程資金으로 收買하기 위해 英國側에게 鐵路用借款의 使用을 要請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前揭海防檔 No. 559 p. 899 ff 外部收郵部文(宣 2. 10. 1) 浙路의 收買를 確定지어 英國側에게 資金을 내놓게하려는 음모인 것같다.

(195) 同註 192.

(196) 拙稿. 淸季諮議局의 開設과 그 性格, 歷史學報45輯, (서울 1970)參照.

(197) 東方雜誌 7年 9期, 中國大事記補遺 p. 67 및 政治官報 1051號 宣統 2年 8月 28日 (36册) p. 471 電報類.

(198) 以下의 諮議局에서의 討議와 巡撫代奏拒否까지의 記述은 時報 宣統 2年 2月 9日의 地方要聞 및 東方雜誌 7年 10期, 中國大事記補遺 pp. 75—77에 의거함

이어 副議長 陳時夏가 輿論代表로서의 소임을 다하기위해 全浙人民의 命脈이 걸려있는 浙路問題에 諮議局이 간여해야한다는 演說끝에 巡撫에게 湯免職反對의 陳請書를 보내어 代奏를 要請하기로 하였다. 陳時夏는 拒款運動時 在日留學生으로서 國民拒款會와 연락하기 위해 歸國하기로 한 四人중의 한사람이기도하였다.[199] 陳請書의 要旨는 治者도 被治者와 마찬가지로 法의 拘束을 받아야한다는 民主的法治理論과, 諮議局章程에서 諮議局이 다룰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한 「本省權利의 存廢」에 浙路問題가 해당된다는 主張을 전개한 것이었다. 巡撫는 諮議局의 代奏要請을 拒否하였다. 理由는 이미 同一한 內容을 代奏(浙路股東에 要請에 따라)했으나 申斥당하였다는 것, 郵傳部가 湯免職의 근거를 이미 밝혔다는 것, 이 代奏要請은 諮議局權限밖의 일이라는 것 등이었다. 분격한 議員들 중에는 諮議局의 해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大部分이었다는 報道로[200] 알 수 있듯이 諮議局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경한 對官鬪爭의 무대가 되었다. 諮議局은 抗拒의 表示로 스스로 停議하였고 巡撫는 開議를 命令하는 등의 爭執이 繼續되다가 資政院의 介入으로 겨우 開議했으나 여전히 浙路問題 討議를 고집하기때문에 이번에는 反對로 巡撫가 停會命令 및 解散威脅으로 壓力을 加하였다. 理由는 諮議局이 規定된 權限을 넘어서는 行動을 하였다는 것, 또는 巡撫의 말대로 開議안했다는 것, 그리고 諮議局이 잘못을 「悛改」하지 않는다는 것등 이었고, 諮議局側은 아무 죄가 없는데 무엇을 「悛改」하느냐는 것이었고 代奏要請은 당연히 「本省權利의 存廢」에 관계되는 것임을 되풀이 하였었다. 浙江巡撫가 主로 中央의 憲政編査館의 指示에 따라 行動하였음으로 資政院議員(浙江諮議局出身의 邵羲) 중에서는 憲政編査館이 資政院의 權限을 침해한다하여 抗議를 하기도 하여[201] 湯免職事件은 立憲過程에 있어 反中央的 趨勢를 激化시키고 反

(199) 風潮, p. 361
(200) 時報, 宣統 2年 9月 14日, 地方要聞.

官的氣風을 普及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공헌하는 결과가 되었다.[202] 이는 立憲運動을 中央集權體制强化로 誘導하려는 淸廷의 意圖와는 逆行되는 것이었다. 浙江諮議局의 이같은 움직임은, 마찬가지로 鐵路問題로 中央과 對決하고 있던 江蘇省의 諮議局과 湖南省의 諮議局의 강력한 支持를 받고 있었다.[203]

5. 江浙路紛糾의 性格과 紳士層의 向方

拒款廢約運動에서 湯壽潛免職抗拒運動에 이르는 光緖末年에서 辛亥革命前夜에 이르는 紛糾의 가장 主된 特色은 地方의 利益保全과 中央의 外交的 利害關係가 相衝되는 가운데 地方紳士들이 그 利害保全을 위한 운동을 反帝國主義的(國民主義的) 利權回收運動의 一環으로서 主導함으로서 淸廷과 地方의 對立關係가 促進되었다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注意할 것은 그 紳士層은 傳統的인 守舊的 在鄕紳士가 아닌 開明知識分子로서의 紳士들에 依해 領導됨으로서 단순한 地方利益保全이 아닌 「國民意識의 貫徹을 통한 地方主義」인 「國民主義的 地方主議」라 할 것이 운동의 큰 줄기가 됐다는 사실이다.

拒款廢約運動을 전개함에 있어 처음부터 蘇浙路兩公司에 맡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兩路公司를 이끌어간 浙江國民拒款會와 江蘇鐵路協會는 公司라는 利益團體와는 別個의 全省的 運動機構였다. 그 構成을 위해 「國民」을 구성하는 紳商學軍四界의 聯合을 主張하였음은 앞에서 보았다. 「學界」라 할 경우 新式學堂의 敎師와 學生들을 아울러 包含시키고 있는데 浙江全省學校를 聯合한 學生拒款運動을 영도한 杭州高等學堂에서의 9月

(201) 以上의 記述은 國風報 1卷 27期 (宣 2. 10. 1) p. 2 및 政治官報 1067, 1070, 1083, 1086 1093號 (宣二 9.15, 9.18, 9.27, 10.1, 10.4, 10.11日)에 의거하였다.

(202) 註(196)의 p.126 參照.

(203) 國風報 1卷 25號(宣. 2. 9) p.3 및 p. 23

25日의 拒款集會의 경우, 그것이 校長인 太史(在籍 翰林院編修?) 吳雷川의 主宰 아래 열렸고[204] 10月 1日의 浙省의 各學校代表 110人이 모인 浙江學 界聯合拒款大會에 있어서도 吳雷川이 大會를 領導하고 있다.[205] 「嘉興學商界集議拒款事」라 題한 拒款集會記錄도 師範學堂 監督 陶慧斧가 主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206] 이러한 敎員層은 吳雷川의 경우처럼 紳士層중에서 新式學問을 習得한 開明知識分子라 하겠는데 이들이 學生들을 이끌어 拒款運動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紳士層중의 또 다른 開明知識分子로서는 諮議局議員을 들어야 하겠는데 諮議局이라는 立憲的 代議機構에 初選 複選을 거쳐 進出한 사람은 基本的으로 立憲機關에 參與한 그 自體로서 이미 一旦은 立憲運動者라 할 수 있겠는데 前記한 浙江十一府의 113人의 江浙紳士중 嘉興의 陶葆霖 湖州의 蔡煥文 兪宗濂 寧波의 王序賓 丁中立 王予裒 紹興의 陳冀亮[207] 王佐 金華의 蔡汝霖 嚴州의 葉誥書 金華의 王廷揚등 11名이, 人員數로는 全體의 約10%이지만 地域的으로는 全省 11府의 過半인 6府를 代表하여 諮議局으로 進出하고 있다.[208] 그外 拒款運動에 活躍한 사람으로서 浙江諮議局에 進出한 사람은 副議長이 된 前記한 陳時夏와 邵羲가 있다.[209] 마찬가지의 경우를 江蘇省에서 보면 江蘇鐵路協會發起人 68名中 諮議局議員이 된 사람은 揚州府의 趙鉦鋐 蘇州府의 方還 陶維坻 松江府의 雷奮 朱祥黻 黃炎培 常州府의 儲南强 孟昭常 鎭江府의 馬良(湘伯) 太倉州의 洪錫範등 10名이 全省 10府 1直隷州에서 5府 1直隷州를 代表하여 諮議局으로 進出 하

(204) 風潮 p. 133
(205) 風潮 p. 368
(206) 風潮 p. 135
(207) 이는 風潮의 113名의 名單중의 紹興出身 陳儀亮과 同一人인듯 하다. 冀는 翼에서 誤書된 것이고 翼은 儀를 잘못쓴 것이 아닐까?
(208) 風潮, pp. 39—42 및 張朋園, pp. 270—4
(209) 邵羲의 拒款主張에 대해서는 風潮 p. 183. ff. 그는 前述한 것처럼 뒤의 資政院으로 진출하여 湯免職事件에 활약했다.

고 있다.[210] 그 外 江蘇諮議局議員 중 拒款運動에 참여한 사람으로는 議長인 張謇(通州) 沙元炳(通州) 許鼎霖(海州) 王同愈(蘇州) 孟森(常州府) 楊廷棟등[211] 이 있다.

이로서 紳士들중의 開明知識分子가 이 蘇浙路紛糾를 계기로 結集되었다가 諮議局構成으로까지 끌고 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212] 立憲運動이나 諮議局構成에 있어 報館從事人과 新式學堂出身이 主導的役割을 했음은 이미 밝혀진바이어니와[213] 이 江浙路紛糾에 있어서도 報館 및 學生層의 절대적인 支援에 힘입었음은 앞에 이미 살폈다. 英國公使「조단」이 1906年에 즉 8年만에 다시 中國에 와보고서 中國에 새로운 世代가 成長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고 있는 것은[214] 바로 上述한 狀況을 江浙路紛糾를 통해 明白히 인식하게 됐음을 意味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조단」이 놀랄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들 新世代가 이미 王朝次元, 社會階層의 差異를 넘어선 同質的社會를, 적어도 觀念的으로는 전제한 反帝國主義的「國民意識」을 당연한 주장으로서 내걸고 代議와 納稅의 不可分의 關係를 主張하고 있었기때문일 것이다. 그들 拒款運動者들이

대저 立憲이 바야흐로 싹을 터서 한참 諮議局의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데 國民이 이같은 一大挫折을 당하였다. 만약 고개를 숙이고 소심하여 舊社會에서의 奴隸的인 習慣을 따라 저항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立憲 實現만이 可望이 없다하겠는가? 다시 奴隸

(210) 風潮 p. 274 및 張朋園 pp. 258—263

(211) 그들은 모두 上海의 預備立憲公會의 主要構成員들이었다. 預備立憲公會員으로서 「風潮」에 拒款活動이 기록된 사람으로는 雷奮, 李厚祐, 張元濟, 孟昭常, 汪清穆 등이 있었다. 張玉法, 淸季的立憲團體(臺北 1971) p. 368 參照. 藤井 p. 28 및 風潮. p. 471ff.

(212) 諮議局議員과 開明知識分子의 관계에 대해서는 前揭拙稿 p. 110ff 參照.

(213) 前揭拙稿 pp. 114—116

(214) E-tu Zen, Sun p. 72

의 慘狀으로 곧 되돌아가게 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들 士大夫들은 앞으로 설사 代議機構의 一員같은 것이 되고저해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음은[215] 紳士들이 紳士로서의 旣成特權을 立憲이라는 制度를 통해 保持하려하고 있음을 明白히 알게하니 拒款運動도 그 立憲運動과 같은 次元의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蘇州拒款의 幹事員인 姚子良은「拒款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健全한) 立憲이 이루어질 可望이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216] 紳士層이 영도하는 立憲體制는「民權」의 伸張으로 表現되고 있거니와[217] 民權이란 결국「官權에 對한 民權」의 뜻이었다. 그러므로「民氣를 抑壓한다」는 말은 張謇같은 사람이 湖北起義後 淸廷에의 支持를 拒否하는 電文에서 淸廷이「士論을 꺽고 눌렀다」고 한 것[218]과 같은 것이고 辛亥革命때 및 그 뒤의「民黨」과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 따라서 그 核心에는 紳權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民權」을 保障하기 위해「國民」槪念이 前提가 되는 立憲制가 理念的으로 追求되나, 그「國民」의 現實的 存在는 官을 意味하는 中央政府 즉 淸廷에 대한 地方權益擁護의 場에서 비로서 確認될 수 있었다. 더우기 문제가 된 것은 地方利害에 直接관계된, 紳士들이 投資한 地方鐵路의 主導權이었던 것이다. 馬良같은 사람은 外國人이 전에는 瓜分을 주장했으나 지금은 手段을 달리하여 協約을 가지고 中國人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또한 中央集權說을 적극 권장하여 淸廷의 野心을 부채질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內外問題 上下問題에 龜裂을 가져와 漁夫之利를 얻으려 한다. 라고 하였

(215) 江震旅滬同鄉會, 對於蘇浙鐵路拒款之意見書, 風潮, p. 179

(216) 風潮 p. 120

(217) 風潮 p. 158의 時報論說「爲蘇浙路債事忠告外務部」에「預備立憲之時代不可以摧抑民權也」라 하였고 滬南商學會에서의 馬逢伯의 拒款演說에도「抑民氣以絶立憲之望」(風潮 p. 404)이라 하였다.

(218) 張謇, 張季子九錄, 政聞錄 卷3 p. 181, 致袁內閣代謝宣慰使農工商大臣電. 마찬가지 表現이 勸告鐵將軍函上同 p. 180에도 보인다.

(219) 風潮 p. 380 10月 4日 江蘇鐵路協會에서의 演說

거니와[219] 馬良의 이 말을 保證이나 해주듯 銀公司의 代表「블랜드」는 이 紛糾의 결과로 中央集權의 希望이 완전히 좌절됐다고 하고 있다.[220] 따라서 「國民意識」은 그것을 관철하려면 할수록 地方中心主義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블랜드」가

滬杭甬鐵路協約(•借款合同)의 結果는 地方의 獨自性展開를 (直接的結果로서는 反滿清運動)위해 意義 깊은 일이었는데 地方의 獨自性은 이를 계기로 결정적으로 힘을 얻었던 것이다.

라고 하고[221] 그 이후로는 各省마다 처벌받음이 없이 中央政府 即 清廷의 권위를 감히 무시할수 있게 됐고 그래도 清廷이 꼼짝 못하게됐다고 한 것은[222] 這間의 事情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盛宣懷나 「블랜드」가 存款章程形式의 해결을 가지고 江浙側이 清廷에게 完全히 「勝利」하였다고 본 것도[223] 地方中心主義對 中央政府와의 對決에서 地方中心主義가 進一步하였다는 뜻인 것이다. 外國의 경우 흔히 國民主義는 政治的 國內統一을 大前提로 한 反帝國主義運動을 出發點으로 하여 展開되는데 清末中國의 경우는 反中央政府的 地方中心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反帝國主義運動을 통해 나타나는 國民的統合의 推進이 國民主義의 特色이 된 것이다. 「블랜드」나 盛宣懷는 借款合同이나 存款章程체결을 評價하여 그렇게 말하였지만 前述한바와 같이 江浙地方의 反中央運動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存款章程廢止運動, 그리고 湯壽潛免職抗議運動으로 擴大進展되어 清廷과의 마찰은 결국 辛亥革命時까지 끌고 가게 되었던 것이니 江浙兩省紳士層의 辛亥起義에의 反應은 江浙路紛糾가 造成한 趨勢를 바탕으로 비로소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對內的으로 清廷의 權威에 대한 挑戰으로 전개되는 拒款運動은 그 紛

(220) Bland, p. 241
(221) 上同 pp. 237—38
(222) Bland, p. 239, p. 241.
(223) 盛, 未刊信稿 p. 117 및 Bland p. 33 및 p. 240

斜가 英國이라는 帝國主義國家의 壓力이 作用된 結果의 것임으로 당연히 (對內的國民主義外에) 反帝國主義的 對外的 民族主義의 方向도 아울러 取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激한 語調로보아 湯壽潛이 直接 쓴 것으로 보이는 浙路致北京辦事處電에서

外務部는 借款手數料만을 탐내어 앞서 皇帝의 이름으로 承認한 原則이나, 政府가 制定한 商律 그리고 나라의 體統이나 民心을 전혀 돌보지 않고 浙江省을 즐겨 남에게 내주려하고 있다. 浙江人도 그 뜻을 받아 埃及 印度 朝鮮 越南같은 亡國의 先例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고[224] 있는 것이라던지 蘇州拒款會幹事員 姚子良이 앞에서 引用한 말에 이어 「拒款에 失敗하면 장차 印度나 高麗같이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225]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時報의 한 論說이 「外人에게는 信用을 지켜야하는 것을 알면서 國民에게만은 信用을 안지켜도 좋은가?」라고 할때[226] 淸廷과 帝國主義英國의 壓力이 一體로 받아드려지고 있음을 본다. 10月 5日의 浙江旅滬(上海)同鄕會에서 外賓으로 참석한 馬逢伯이 「現在政府는 바로 外國人의 政府이다. 우리는 그 命令을 들을 必要가 없다」고 極言할때[227] 그러한 의식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러한 認識은 革命黨員이 淸廷의 전복을 주장해야하는 논거로서 「洋人을 막아내려면 革命을 하여 獨立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淸廷이 洋人을 막아내고자 싸운다면 나는 淸을 도울 것이다」라고 한 것과[228]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

(224) 風潮 p. 60

(225) 同註 (216)

(226) 風潮. p. 113

(227) 中興日報(星加坡發行) 丁未年 11月 27日字, 彙誌 蘇浙人民認股拒款情形(中華民國開國50年文獻 第1編 第16册 p. 668. 그리고 風潮. pp. 384—385에도 記事는 보이나 연설 내용은 안보인다.

(228) 陳天華. 警世鍾 (中華民國開國50年文獻 第1編 第16册 p. 155). 마찬가지 發言은 陳의 猛回頭(開國文獻 同上 p. 178)에도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拒款運動을 領導해온 二大指導者인 張謇과 湯壽潛이 拒款運動의 暴動化를 始終 警戒·抑制하였으면서도 끝내는 淸廷의 滅亡에의 急傾斜를 直視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그럼으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찌기 湯壽潛이

杭州선 暴動이 나리라는 소문이 있다. 이는 外務部가 만들고 朝旨가 促成하여 諸老들이 「默許」한 것이다. 湯壽潛 劉錦藻가 鎭撫한다 해도 힘있는대로 밖에 할 수 없어 暴動化의 危險을 (끝내) 막을 자신은 없다.

고 한데서[229] 이 指導者가 暴動의 가능성과 아울러 (경우에 따른) 그 타당성을 승인할 姿勢를 가졌음을 알겠는데 湯壽潛免職抗議鬪爭에 있어 浙路株主들이 浙撫에의 代奏要請文에서

오늘날 (·政府命令에)順從하여 立憲國民의 資格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검으로서 그것을 지켜 朝廷으로부터 不測의 斥責을 받는 것이 낫겠다.

고 할때[230] 또는 「寓滬浙江人」의 이름으로 中外日報에 보낸 拒款意見에서, 淸廷에의 呼訴를 할데까지하되 「그래도 만일 効果가 없으면 朝廷이 江浙을 헌신처럼 버리는 것과 같으니 속히 自保할 方策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納稅拒否를 公然히 호소 할때의[231] 姿勢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張謇이 記述한바에 依하면 宣統元年 浙人某와 더불어 國會請願問題를 論하는 자리에서 浙人某가 「政府 社會의 여러 面의 현상으로 보면 나라가 亡하지 않는다면 天理가 없는 것이나 같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 浙人某가 누구인가는 明示되어있지 않으나 이 당시 張이 浙江省의 代表格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리고 敢히 淸朝 運命의 傾斜에 대해

(229) 風潮, p. 61 浙路公司 致北京電
(230) 東方雜誌 7年 10期 (p. 76)
(231) 風潮, p. 79. 風潮의 編者도 朝廷에 服從할 義務를 拒否할 것을 말하고 있다. (p. 45)

말할 수 있는 사람은 湯壽潛外에 없는 상황에서[232] 淸朝의 必然的 滅亡을 敢히 承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은 湯壽潛이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拒款運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찌기 湯壽潛은 「拒款反對運動이 팽배한 가운데 나를 책망하는 말이 날마다 들린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온건하다고 오히려 의심하고 있다. 위 (政府)에서 올바른 길을 벗어나니 아래서는 秩序가 어지러워진다(上失其道 下則於亂). 나는 賭博꾼의 마지막 밑천을 털어놓는 것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항아리에 갇힌 사람(甕中人)이 되었다. 그 견디기 어려움은 執政諸公의 百倍가 된다」라고 한바 있다. 賭博의 마지막 밑천을 털어놓았다가 지는날, 賭博판은 깨지기 마련이다. 湯이 代表하는 東南紳士는 江浙路利權保護라는 마지막 賭博판에 마지막 밑천을 거는 모험을 하여 거의 판가름 났을때, 武昌起義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이 도박판을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湯보다는 穩健한 張謇도 (國會)請願이 끝내 달성되지 못한다하더라도 淸이 亡하게 되는날 天下後世로 하여금 이 時代의 사람이 淸을 위해 (그래도) 最善은 다했음을 장래에 전해야한다고 하고[233] 또는 「조속한 立憲實施가 淸朝의 滅亡을 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立憲國家가 滅亡할 경우 專制體制國家가 滅亡하는 경우보다 사람들의 受禍가 가벼운 것

(232) 前揭張謇年譜 p. 63. 宣統 3年 正月에 中央政府에서 外債借入與否에 대해 「南方」側의 意見을 물었을 때 그 對象은 湯壽潛, 張謇, 그리고 鄭孝胥로 되어있고(·張謇, 自訂年譜 p. 66), 武昌起義後, 袁世凱가 滿淸 親貴에게 『黎元洪 程德全 등 (淸의 政府官吏出身의 都督)은 討伐할 수 있으나 (江蘇의) 張謇 (浙江의) 湯壽潛, (湖北의) 湯化龍, (湖南의) 譚延闓 같은 (官吏아닌 紳士出身의 各省都督) 老百姓의 代表는 討伐할수없다』고 하였다는 것(劉厚生, 張謇傳記, 上海 1958. p. 192)으로도 湯이 당시 浙江을 代表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었음을 알겠다. 張謇과 더불어 天下의 일을 논할 상대로서는 湯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張·湯二人의 共同名義로 北方紳士에게 보낸 共和를 支持하라는 呼訴電文이 大勢의 轉換에 크게 作用하였음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前揭張季子九錄 政聞錄 卷 8 p. 188).

(233) 風潮, p 273

(234) 張謇, 送十六省議員詣闕上書序, 張季子九錄 文錄 卷 10 pp. 2355—2358

이다」라고[235] 하고 있는 것도 淸朝의 滅亡을 不得不承認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한다. 張謇이 淸朝에 대해 絶望을 해가는 무렵 張謇의 側近이었던 劉厚生이

二年來로 淸廷의 親貴가 權力을 左右하여 해놓은 일이 足히 全國의 諮議局議員으로 하여금 사람마다 풀이 죽어 絶望하게 하는 정도였으니, 諮議局議員이 絶望하는 날은 곧 淸朝基礎가 動搖되는 때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236] 江浙의 경우, 諮議局이나 또는 그것이 代表하는 紳士層으로 하여금 淸廷이 「抑民氣하여 立憲에의 希望을 끊고」[237] 있음과 그리고 立憲制度實施의 이름아래 마련되는 것이 「假面」임을 切實하게 看破하게한 것이[238] 다름아닌 江浙路紛糾의 趨移였던 것이고 諮議局으로 하여금 地方議會로서 地方利害에 연관되는 權限을 지키기 위해서는 反官 反中央의 立場을 堅持해가야 함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湯壽潛免職事件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 淸朝打倒를 위해 自保獨立한 湖北省起義軍이 내놓은 佈告文을 읽어보면 이 鐵路紛糾의 意味를 보다 明白히 알 수 있으니 鄂省都督黎元洪 이름으로 된 中華民國軍政府의 佈告文은

(•淸廷은) 立憲의 美名을 빌어 中央集權之勢를 行하였다. ……오늘 一城을 (•帝國主義國家인) 「友邦」에게 내어주고, 오늘 礦山을 팔고 내일은 鐵道를 팔아 먹었다. 우리 「民」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어쩌다가 다투면 「政權에 干與한다」 또는 「마구 죽여도 좋다」고 하였다. 심지어 우리가 自辦하는 鐵道, 스스로 모은 資本도 모두 官有로 해버렸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239] 反官反中央은 革命을 의미하는 「獨立」으로

(235) 張謇年譜 p. 66

(236) 劉厚生. pp. 183—4

(237) 風潮 p. 404 滬南商學會서의 馬逢白의 연설.

(238) 風潮 p. 326 常州股東致蘇路公司函.

(239) 中華民國 鄂軍都督黎檄告天下文, 中國革命記(上海 1912) 第一册 pp. 5—8. 여기서는 四川保路運動만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立憲運動, 利權回收運動, 江浙鐵路紛糾, 四川保路鬪爭을 一括하여 말하고 있다.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浙江省에서 革命起義를 한 것은 他省과 마찬가지로 新軍이었지만 浙江都督에는 臨時司令인 憲兵司令 童保喧을 제쳐놓고 「爭路運動에서 群衆에게 威信을 確立한」湯이 아니면 사태수습이 어렵다하여 湯이 都督으로 擁立되고 있는데[240] 이 과정에서 主動的으로 活動한 사람은 諮議局議員 褚輔成外에 스스로 爭路運動에도 參與했던 諮議局副議長 陳時夏와 그리고 역시 諮議局의 副議長인 沈鈞儒였다.[241] 그러기에 都督될 뜻이 있었던 82標統周承葵도 湯이 추대되자 都督될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던 것이다.[242] 武昌起義直後, 紳商들이 諮議局에 모여 共同으로 民團을 組織하여 表面上으로는 防衛를, 實際로는 響應을 豫備하였는데 이때도 湯이 總理로, 諮議局議長인 陳黻宸이 副理로 추대되고 있다.[243] 그뒤 湯은 或은 張謇과 더불어[244] 或은 江蘇都督程德全과 더불어 共和制의 臨時政府樹立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245]

---

(240) 湯壽潛이 東南紳界의 巨物로 認定되게 되는데에 蘇杭甬鐵路借款때 비로서 크게 作用하였음은 劉厚生의 證言으로도 알 수 있다. 그는 前揭書 p. 189에서 庚子亂 當時만 하더라도 湯은 張謇과 齊名하지 못했는데 蘇杭甬鐵路借款때 비로서 크게 銳氣를 나타내어 辛亥革命때는 兩人의 명성이 거의 伯仲하였다고 하였다. 湯의 都督擁立에는 諮議局議員이며 同盟會會員인 褚輔成의 힘이 컸었는데 褚의 湯壽潛擁立理由가 「爭路로 衆望이 所歸」한 湯이라야만 湖南省의 경우같은 變을 當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紳士勢力이 傳統的으로 强한 湖南省에서 社會的名望이 없는 점은 同盟會員 焦達峯이 都督이 됐다가 3日만에 좌절됐던 것이다. (褚輔成, 浙江革命紀實, 前揭開國五十年文獻 二篇第四册, 各省光復 中 p. 120) 通考 卷 371 郵傳 12(p. 11170)에 引用된 「鄒道鎔鐵路關係記」에도 「四川省이 끝내 獨立하자……東南(江浙)이 響應하였는데 전에 滬杭甬借款을 拒否하고저 싸운 湯壽潛이 앞장서 淸帝讓位를 要求하고 곧 이어 都督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41) 沈鈞儒, 辛亥革命雜憶 辛亥革命回憶錄 第 1集(1961) pp. 140—141

(242) 馬叙倫, 我在辛亥這一年. 辛亥革命回憶錄 1集 p. 173

(243) 同上 p. 172

(244) 張孝若, p. 151

(245) 張謇 自訂年譜 p. 72, 宣元 10月條. 拒款運動을 영도하였던 湯을 中心으로한 영도층이 武昌起義後의 사태도 영도한 결과 江浙兩省은 그 激變期에도 「市廛不動」하는 평온한 질서유지를 할 수 있었고(劉厚生 p. 183) 滿軍이 駐防하고 있는 杭州市는 湯의 名望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滿漢相鬪를 막을 수 있었다(註 218所揭勸告鐵將軍函 및 註 242所引 馬叙倫回顧談), 當時의 杭州日本領事館의 報告에 依하면 湯은 南京臨時政府의 交通總長에 選任되어도 就任하지 않았는데 浙省人士들은 湯이 杭州를 떠나면 民

辛亥革命의 渦中에서 大勢를 轉換하고 秩序를 維持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있던 사람이 바로 湯壽潛과 張謇이었다. 그들의 영향력아래 이룩된 上海와 蘇州의 獨立이 形勢를 觀望하던 많은 省에게 決定的으로 作用하였다하거니와[246] 그들은 共同으로 北方將士에게 共和支持를 促求하는 電文을 보내었고[247] 南方臨時政府를 樹立 維持하는데 中樞的役割을 하였었다. 그들의 이러한 活動의 舞臺는 主로 上海였거니와 上海는 前述한대로 拒款運動의 中心舞臺였고 行政區域上으로는 江蘇省에 屬하였으나 拒款運動에서 보듯이 浙江省人의 活動과 一體가 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이렇듯 有力한 民間指導者로서 영향력을 發揮하게 된데에는 辛亥起義直前까지 繼續된 蘇杭甬路紛糾가 直接的으로 作用하였던 것이니 特히 湯의 경우 그러하였다 함은 앞에 보았다. 그 紛糾가 이곳 紳士들을 結集하여 마침내 起義편에 서서 淸朝를 포기하게 하였는데 蘇浙兩省이야말로 淸一代를 通하여 가장 많은 官僚를 輩出한, 따라서 紳士數가 가장 많은 곳이었던 것이다. 一例로 淸一代의 知州知縣出身地의 統計에서 보면[248] 浙江이 一位, 江蘇가 二位를 차지하고 있음을 본다. 官僚秩序가 바탕이 된 淸代에 있어 가장 官僚를 많이 輩出하였고 따라서 紳士가 많은 兩省이 곧 全國의 中心的影響力行使地域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心이 動搖할 우려가 있고 浙路의 前途가 매우 위험하다고 南京當局에 호소하였다 하는 바(日本外務省文書 마이크로필림 MT. 1, 6, 1, 50, 108 明治 45年 1月 1日, 杭州領事館池部領事代理의 第1號報告)이것 역시 湯壽潛의 浙江에서의 領導力의 所致였던 것같다. 南京臨時政府의 財源을 염출하기위해 滬杭甬鐵道를 擔保로 美國에서 借款을 들여오자는 論이 湯의 완강한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徐崙, 張謇在辛亥革命中的政治活動(湖北省哲學社會科學學會聯合會編, 辛亥革命紀念論文集, 北京 1963, p. 417) 湯의 關心이 극히 原則論的인 國民主義와 浙江人의 利害에 密接하게 연관된 것을 암시하는 事例라 하겠다.

(246) 劉厚生, p. 183 蘇滬獨立前에는 四省만이 獨立하였으나 그뒤 五日동안에 十四個省이 獨立하였다.

(247) 徐崙, 張謇在辛亥革命中的政治活動, 辛亥革命五十周年紀念論文集 下册, (北京 1962) pp. 412——13 및 前揭 張謇年譜 p. 72 그리고 張季子九錄 政聞錄 卷3 p. 189 與湯壽伯復北方將士促進共和電 參照.

(248) 近藤秀樹, 淸代の捐納と官僚社會の終末, 史林 46卷 2, 3, 4號(京都 1963) 第六表. 知州知縣出身地方別表.

이다. 그러기에 이곳 紳士들의 結集된 힘이 끈질겼고 그 省의 領導者로 하여금 全國的影響力을 가지게 하였던 것이다.

前述한바처럼 東南紳士들은 淸廷의 前途에 거의 절망하였으나 마지막 도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털고 일어서지는 못하였으니 그러하게된 여러 원인중에는 旣存秩序에 뿌리박었던 紳士層의 排他的同類意識, 즉 拒款運動에 있어 廣範圍한 民衆의 광범한 支援을 받았고 「國民」을 말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성숙한 國民的 一體感은 가질수 없었기 때문에 行動의 힘을 産生해내지 못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傾向은 「寧垣蘇路股東拒款會意見書」에서 그 一例를 볼 수 있으니 上海나 各府州縣의 富商에게 招股를 호소하면서 아울러 公司의 董事들이 富商을 鄙夷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249] 이 意見書는 또한 公司의 執行部에 대한 不滿도 表示하면서 그 改選까지도 강력하게 要求하고 있으니 內容인즉 13人의 董事가 하는 일없이 報酬를 받고 있어 乾修의 支給을 禁한 公司章程에 어긋난다는 것과 董事들이 一般 株主를 보기를 마치 奴隸 보듯하고 株主가 혹 어떤 권고를 하면 「悍詞駁斥 驕蹇愚懦」하여 실로 「近代의 腐敗政府」 즉 淸朝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公司의 執行部를 구성하는 小數 上層紳士層에 대한[250] 一般人의 不滿의 表現으로 볼 것이고 그들과의 國民意識上의 一體感이 아직 成熟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다.

上海의 경우 蘇杭甬路의 起點이 있는 南市의 商人들이 拒款運動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것도[251] 注目되는 바이니, 10月 7日에 上海중에서도 租界地區아닌 中國人生活地區인 南市에서 千餘名이 모여 개최된 拒款會에서 認股된 것은 겨우 7千股뿐이었다.[252] 그보다 이틀 앞선 10月 5日

(249) 風潮, pp. 293—95
(250) 藤井, p. 28 參照.
(251) 風潮, p. 403의 「上海南部商學會傳單」
(252) 風潮, pp. 404—5 「滬南商學會開會略記」

의 浙江旅滬同鄕會에서의 認股도 滬北商團이 25萬元인데 比해 南市商團은 5千元으로 되어있다.[253] 宣統 3年의 南商會의 大體的인 構成을 말하는 한 資料에 依하면[254] 總 56名中 自來水公司(李平書), 業成銀行(王一亭), 信成銀行(沈漫雲), 交通公司(黃友林), 大達公司(陳子岩), 申大麵粉廠(顧馨一, 王寶嵩)等 그 名稱으로 보아 近代的 大企業으로 생각되는 6個外에는 거의가 生活必需品業에 관계되는 傳統的인 아마도 小規模인 業體임을 짐작하게한다. 「江浙鐵路風潮」에 收錄된바를 가지고 拒款運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南商會構成員에서 골르면 李平書[255] 沈縵雲(懋昭)[256] 葉惠鈞[257] 정도인데 그中 前二者는 近代的企業을 經營하는 사람이다. 葉惠鈞(漢帮米業)은 그 業種으로 보아서는 傳統的인 商業인 것 같으나 宣統 3年에 南商會의 理案(沈縵雲은 文牘, 李平書는 糾儀)을 맡고 있으며 1911年 3月에 결성된 全國商團聯合會의 副會長(會長은 李平書, 副會長二人은 葉外에 沈縵雲)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258] 李·沈과 겨눌만한 大商이며 商人중 開明된 活動家인듯 하다.

拒款運動에의 呼應이 미약한 南市에서 그나마 活動的인 사람은 近代的大企業經營者들이라는 점은 兩路公司의 董事 또는 主要株主의 거의가 紳士出身으로서 近代的企業을 經營하고 있었다는 점[259]과 相通한다 할

(253) 風潮. pp. 385—88.

(254) 民立報 1911. 2. 26日字「滬南商會選擧記」(東京敎育大學アジア史硏究會編, 中國近代化の社會構造(東京 1963) p. 117

(255) 風潮, p. 378. 10月 4日의 江蘇鐵路協會의 大會에서 主席이 되고 있다. 그는 同時에 여러 近代的企業에 관여하고 있고 蘇路公司의 董事이기도 하다. 廣東의 知縣·張之洞의 幕友을 지낸 李의 經歷에 대해선 藤井, p. 28 및 上註 所揭書 p. 119.

(256) 沈은 江蘇鐵路協會發起人(風潮, p. 2747)이고 上海南市商界代表로서 浙江巡撫에게 拒款意見書를 내고 있다(風潮. p. 319).

(257) 註 251 所記資料에 의하면 葉惠鈞은 漢帮米業을 경영하고 있다. 이는 그 名稱으로 보아서는 近代的業體는 아닌것 같다. 그러나 葉은 江蘇鐵路協會發起人이고 10月 4日의 江蘇鐵路協會大會에서 가장 강경한 主張을 한 사람중의 一人이다(風潮 p. 378 p. 381)

(258) 註 254 所引書 p. 119.

(259) 藤井, p. 28—29.

것이니 兩路總理가 借款强要를 가리켜 앞으로의 實業의 萌芽를 꺾는 것이라고 表現한[260] 그 「實業」에 從事하는 紳士出身 「實業」經營者(그들이 富商을 鄙夷한다는 그 董事의 大部分을 이루고 있다)와[261] 傳統的인 中小商人과의 사이에 國民으로서 또는 實業人으로서의 一體感의 形成에 결함이 있었음을 생각케 하는 것이다. 王文韶가 國民拒款會長에 就任의 條件으로 暴動은 안일으킬 것을 말한 것에 端的으로 나타나듯 領導紳士層은 끝내 非暴力的方法을 一貫하려고 애썼다. 이것이 끝내 暴動으로 번진 四川保路運動과의 差異點이다. 그러나 湯壽潛등은 暴動化의 可能性을 充分히 알고 事態가 그 一步直前에 다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下層大衆들의 적극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그 暴動化를 견제하고, 官紳地主出身의 轉向商人(實業人)이 아닌 小商人들의 行動을 高揚시키지 못한데에 江浙紳士의 蘇杭甬廢約拒款運動領導의 限界가 있었던 것이다.[262]

이 紛糾를 틈탄 反體制的秘密結社의 暴動도 제법 활발했으나 拒款運動自體가 非暴力의 線에서 견제됐음으로 그 運動의 主流와 結合되지 못했거니와 이는 運動의 領導層의 穩健策이 一定한 成果(어떤사람은 勝利라고까지했다)를 얻었고(外國勢力의 江浙路直接支配排除)地方官조차도 어느정

(260) 風潮 p. 65 蘇路浙路總協理上外部郵傳部電. 通考 卷 378 實業考一의 纂者序文에 (近時通國皆稱農工商爲實業)이라함 (p. 11239).

(261) 光緖 29年 發布된 奬勵業商章程(通考 卷 391 實業 14 pp. 11405—11406)은 紳士로서 商工業에 出資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光緖 30年 5月 8日字의 上海中外日報는 「論士人不講求實業之非」란 제목의 논설을 싣고 있다(李恩涵, 晩淸的收回礦權運動 p. 159 所引). 이런 추세로 인하여 紳士出身實業人이 많아졌다. 따라서 같은 商工人이라 할지라도 紳士出身商工人과 傳統的인 業種의 中小商工人과는 융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262) 이 무렵 東京에 亡命中이던 章炳麟은 東京서의 浙路問題大會에서 紳士들의 領導權의 「誑騙」性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罷市의 領導權을 紳士에 맡기면 처음엔 지도하는척하다가 나중엔 政府와 타협해버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紳士를 지도자로 삼아 罷市같은 일을 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前揭開國五十年文獻 第一編 16册 p. 672 所引 星加坡 中興日報 光緖 34年 1月 19日字記事). 이는 當時의 紳士層의 領導權의 性格의 一面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어니와 실제에 있어 紳士들은 罷市 그 自體에 反對하였다.

도 同情的이었기 때문인데, 끝내 暴動化했던 역시 紳士層이 領導한 四川保路運動과 江浙의 경우를 對比해보면서 그 意義를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이렇듯 大衆과의 一體感이 未熟했던 淸末의 紳士層은 地方利害, 國民主權論 등을 매개로 大衆의 支援을 받아 淸廷에 抗拒하여 그 滅亡의 不可避性까지는 내다보지만, 끝내 滅亡을 促進시킬 行動은 나타내지 못한채,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新軍에 依해 淸을 滅亡시키려는 起義가 일어나자 이미 쌓아놓은 領導力 影響力을 바탕으로하여 起義側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것이니 이에 비로서 淸廷과의 마지막 도박판을 털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6. 餘 說

外務部尙書로서 借款導入을 적극 추진하였던 袁世凱 및 그가 代表하는 淸廷의 立場은 어떠하였던가를 잠간 살펴 끝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흔들거리는 淸廷으로서는 列强 그중에서도 英國의 支援이 절대 필요하였으니 이에 江浙鐵路紛糾를 英國側의 意見에 좇아 수습하려하였으나 對內的으로 强硬한 反對에 부딪쳐 進退維谷의 狀態에 빠졌던 것이다. 英國政府로서는 外交的壓力이 對內的으로 紳民壓力으로 轉化되어 淸廷의 地位가 지나치게 弱化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였기때문에 때에 따라 약간의 양보는 하였으되, 淸廷自體가 英國의 支持를 不可缺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强穩兩策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평가되고 있거니와[263] 江浙路紛糾에 있어서도 廢約不應 (鐵路築造權確保主張)에서 借款供與로 후퇴하고 그리고 다시 造路借款分離로 약간의 양보는 하였으되 借款强要, 蘇浙路의 中央政府收回 등에서는 끝내 강경하게 대하

(263) T.W. Overlach; Foreign Financial Control in China, New York 1919, pp.61—2, (前揭李恩涵書 p. 272 所引)

였다.

淸廷이 英國側의 要求에 쫓아 절충하는 과정에서 淸廷이 最大武器가 「强國조차도 信義를 지키는데 하물며 積弱의 나라(淸)에 있어서랴」하는[264] 「邦交之道」였는데 이는 强弱의 現實위에서의 信義의 平等이라는 屈從의 論理 바로 그것이었다. 袁世凱로서는 일찌기 義和團亂때 列强側의 信任을 얻어 스스로의 地位를 굳힌 前歷도 있어 그의 態度는 그가 淸廷의 外務部尙書라는 점 아니고서도 對外協調的일 것이 생각되는바, 當時의 英語紙 字林西報(North China Daily News)의 北京發 10月 14日 記事에

> 이곳에서 전해지는말에 의하면 外務部의 여러 高位官僚中 오직 袁世凱만이 借款導入을 主張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中英間의 邦交를 敦厚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를 계기로 信實하다는 美名을 얻어 列强으로 하여금 無信之國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으로[265] 보아도 袁個人의 意向이 英國側意向에 副應하려는 外務部의 이 紛糾처리에 적지 않게 作用했을 것을 짐작케한다. 袁世凱의 이같은 「屈從의 信義」를 견지하는 態度는 스스로 粵漢鐵路回收運動에서 廢約과 利權回收에 앞장 섰던 張之洞과는 對蹠的인 것이라 하겠다.[266] 이러한 兩人의 차이는 江浙路紛糾에 있어서도 明白히 들어났으니 張之洞은 江浙의 激烈한 反應에 자극되어 앞으로 더 激烈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한데 대해 袁은 더 격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新聞들이 꾸며낸데 不過하다고 넘겨버리고 있다. 張之洞은 이에 대해 浙江人全體를 어찌 신문이 움직일 수 있는가고 응수하였다는 것이다.[267] 만약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開明知識分子나

(264) 風潮, p. 429 外部의 電文. 光緖 34年 10月 王鎭의 上諭도 「以昭大信而全邦交」라 하
(265) 風潮, p. 455 所引 神州日報記事.
(266) 掘川哲男 辛亥革命前の利權回收運動, 東洋史硏究 21—3 (京都 1962) pp. 9—12
(267) 風潮 p. 495 所收 中外日報報道

立憲論者들로 구성된 活動的 紳士層의 힘이 地方利害와 연결되었을 때의 힘의 强度 그리고 言論活動의 重要性, 더나아가 國民主義의 힘에 대한 이해에 있어, 辛亥革命을 簒奪하여 洪憲皇帝를 指向하게 되는 袁이 꼭 不充分 또는 未熟하였음을 알게되어 袁世凱理解의 一助를 삼을 수 있다.

비록 政治的利害關係에 있어서는 袁世凱와 對立되어 있었으나 江浙鐵路紛糾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袁의 그것과 비슷하던 淸末의 代表的買辦官僚인 盛宣懷도 南中士大夫가 言論界學生運動에 左右되고 있다고 말한바 있거니와[268] 江浙의 拒款運動者들을 가르켜

蘇杭甬事件에 있어 朝廷에게 戰勝한 그들은 갈수록 驕盈해져서 걸핏하면 集會를 연다.

고 한 말에서 [269] 成熟해가는 國民主義에 대한 盛의 態度가 如何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러기에 盛에게는 이 江浙鐵路紛糾가 「敎訓」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外國借款에 依한 中央政府가 주관하는 鐵道建設」[270] 이라는 鐵道國有措置의 제기가 됐던 것이다. 淸廷이 江浙路에 취했던 조치를 擴大硬化됐을 때 國民들도 淸廷에 대한 態度를 硬化하여 江浙서는 요행이 억제됐던 暴動化가 이제는 (四川의 경우에서 보듯)不可避하게 됐던 것이다. (1972. 5. 10)

---

(268) 盛宣懷, 滬抗甬問類. (海防檔 戊, No. 595 外部收盛宣懷致那桐函附錄) pp. 953—95.
(269) 前揭盛宣懷未刊信稿 p. 117
(270) 滿鐵北京公所編, 支那鐵道概論(大連 1927) p. 215.